碩士學位論文

《古今韻會擧要》 36字母 硏究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濟州大學校 大學院

中語中文學科

金 恩 希

2000年 2月

《古今韻會擧要》 36字母 硏究

指導敎授 安 在 哲

金 恩 希

이 論文을 文學 碩士學位 論文으로 提出함

2000年 2月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金恩希의 文學 碩士學位 論文을 認准함

審査委員長 _____

委 員 _____

委 員 _____

濟州大學校 大學院

2000年 2月

目　　次

* 國文抄錄
* 凡例

Ⅰ. 序論
1. 硏究 槪況
2. 硏究 目的
3. 硏究 範圍와 方法

Ⅱ. 《古今韻會擧要》 36字母 音價 再構
1. 牙音
2. 舌音
3. 脣音
4. 齒音
5. 喉音
6. 半舌、半齒音

Ⅲ. 《古今韻會擧要》 36字母와 中古 36字母와의 異同
1. 〔知〕系
2. 〔幺〕母
3. 〔魚〕母
4. 〔合〕母

Ⅳ. 《中原音韻》 및 昭武 方言과의 比較
1. 《中原音韻》 聲母와의 比較
2. 昭武 方言 聲母와의 比較

Ⅴ. 結論

* 參考文獻
* 中文提要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國文抄錄

본 논문에서는 《擧要》가 단순한 韻書의 수준을 벗어나, 다양한 서적들을 참고하여 집대성한 서적임을 확인할 수 있다.

《擧要》 36字母는 元代라는 한 시대, 南方이나 北方 어느 한 지역의 語音만을 반영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단일 음계의 韻書가 아니라 종합 음계를 반영한 韻書임을 본 논문에서 밝혀 보았다.

《擧要》 36字母는 이제까지 元代 실제 語音을 반영한 것만 너무 부각되어 왔다. 그러나 元代라는 한 시기만의 語音이라고 보기에는 36字母가 너무 많다는 것에 착안을 두어, 《擧要》가 전통 韻書의 영향도 받고, 36字母와 字母韻이라는 체재에 책을 만들 당시의 現實音을 반영한 韻書임을 본 논문에서 밝히고 있다.

〈知〉、〈照〉系 合併에 있어서는 《擧要》에서 이 글자들을 次商이라 하여, [精]系 옆에 두고, 次徵라 하여 [端]系 옆에 두지 않은 것으로 미루어 보아, 이 시기에는 이미 〈知〉系의 글자는 舌上音이 아니라 正齒音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同時代의 韻書인 《中原音韻》과의 비교에서는 《中原音韻》에 반영된 音이 元代의 口語임에 반해 《擧要》에 반영된 音은 전통 韻書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어서 字母 부분에 있어서 비교 관계를 논하는 것은 무리였다.

作者의 출신지로 보고 있는 昭武 方言과의 비교를 통해 昭武 지역이 南方에 있다는 이유로 南方音이라고 보아 왔던 것에 있어서도 昭武 方言 20개와 비교해 본 결과 《擧要》 36字母와 유사한 점이 없어, 《擧要》 36字母가 昭武 方言을 반영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결론을 얻었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본 논문에서는 《擧要》 36字母의 音價를 再構하고, 中古 36字母와 다르다고 보고 있는 ［幺］、［魚］、［合］母와 〈知〉、〈照〉系 合併 관계를 밝혀 《擧要》의 현실 語音 반영 상황을 살펴보고, 《中原音韻》과 昭武 方言을 《擧要》 36字母와 비교하고 있다.

결국 《擧要》는 전통 韻書의 영향을 받아, 종합 음계를 반영한 韻書이다. 또한 36字母 중의 ［幺］、［魚］、［合］母라는 새로운 字母의 신설은 책을 만들 당시의 현실 語音을 반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凡　　例

一. 본 논문에서 《韻會》라 하면 黃公紹의 《古今韻會》를 가리키고, 《擧要》라 하면 熊忠의 《古今韻會擧要》를 가리킨다.

一. 中古 字母는 〈 〉안에, 《擧要》 字母는 〔 〕안에 쓰며, 《中原音韻》 이하 기타 韻書의 字母와 昭武 方言의 字母는 ( )안에 달며, 필요하면 注를 달아 밝힌다.

一. 발음 부위가 동일한 字母를 한데 묶어 밝힐 때에는 예를 들어 淸音의 字母名을 빌어 〈知〉系、〔知〕系 등과 같이 표시한다.

一. '洪: 戶公, 通合一平東匣, 胡公'은 《擧要》의 例字: 《廣韻》의 反切, 例字의 攝、等呼、聲調、韻、聲母, 《擧要》의 反切이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一. 《廣韻》 反切은 廣文編譯所에서 편찬해 낸 《國音中古音對照表》, 廣文書局, 民國 55를 따른다.

一. 例字를 配列하는데 있어서, 《擧要》에는 例字가 있는데, 《廣韻》에 例字가 없을 경우에는 《擧要》의 例字와 反切을 炷: --,------, 淵眭와 같은 방식으로 제시한다.

一. 각 字母내의 例字들은 " "안에 나타낸다. 예를 들어 〔疑〕母의 例字 중에 吟이 있는데, 이 글자를 본 논문에서는 " "안에 적는다.

一. 《擧要》의 反切은 예를 들어 《擧要》내의 〔疑〕母의 例字 "吟"의 反切은 【魚音切】과 같이 표기한다.

Ⅰ. 序論

1. 研究 概況

《舉要》에 대해서는 국내외로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舉要》와 관련된 국내외 대부분의 논문들[1]은 많게 혹은 조금씩은 모두 《舉要》 36字母를 논의하고 있으나, 여기에는 《舉要》 36字母와 직접적인 연관을 갖고 있는 논문만을 간략히 소개하겠다.

李添富는 〈《古今韻會舉要》同音字志疑〉[2]에서 《舉要》의 反切은 《集韻》을 주로 하고 있어서, 蒙古音과 《集韻》의 音切이 함께 존재하고 있고, 또한 蒙古音으로 《集韻》의 音切을 切을 바로 하는 것은 시대에 맞지 않아서, 蒙古音을 조사하여 밝히는데 또한 '《禮部韻略》三十六母通考'를 탐구하면 吳音, 雅音의 구별을 지을 수 있다고 하고 있다. 李添富는 또한 〈《古今韻會舉要》與'《禮部韻略》七音三十六母通考'比較研究〉[3]라는 논문에서 「魚」母가

---

1) 國內 論文으로는 王下枝; 《古今韻會舉要》와 《廣韻》의 入聲字 比較研究,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權赫埈; 〈《古今韻會舉要》의 音韻體系研究 -《四聲通解》의 《韻會》音을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대학원, 1995, 曺喜武; 《古今韻會舉要》研究. 전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8.가 있다. 國外論文으로는 李添富; 〈《古今韻會舉要》同音字志疑〉, 臺灣, 輔仁學誌 第22期, 〈《古今韻會舉要》與《禮部韻略》三十六母通考比較研究〉, 輔仁學誌 第23期, 〈《古今韻會舉要》研究〉, 國立臺灣師範大學 中國文學研究所, 1990., 竺家寧; 〈韻會重紐現象研究〉, 漢學研究 第5卷 第2期 1987., 楊耐思; 〈《韻會》与'七音'、《蒙古字韻》〉, 《語文學術論文集》, 知識出版社, 1989., 王碩荃; 《韻會》音系基礎初探〉, 漢語言學國際學術研討會, 1991., 〈《韻會》與七音〉, 河北省社科院語言文學研究所, 河北學刊 1997., 應裕康; 〈《古今韻會舉要》反切之研究〉, 國立政治大學學報 第8期., 張宰源; 〈《古今韻會舉要》之入聲字研究〉, 輔仁大學 中國文學研究所, 1994.

2) 李添富; 〈《古今韻會舉要》同音字志疑〉, 臺灣, 輔仁學誌 第22期.

새롭게 추가된 것은 蒙古音의 영향을 받았을 거라고 하고 있다.

竺家寧은 《古今韻會擧要的語音系統》에서 《擧要》의 36字母는 宋元시대의 실제 語音의 변화를 반영하고 있는데, 그 현상이 바로 〈知〉、〈照〉系의 혼합, 零聲母 범위의 점차적인 확대라고 보고 있다.

應裕康은 〈《古今韻會擧要》反切之研究〉에서 《擧要》의 反切에 대해 논하면서, 《擧要》의 卷首에 나와 있는 七音三十六字母로 聲母를 분석해서 韻母를 다시 정해 보면, 그 용도가 韻圖와 차이가 없어서 《擧要》는 等韻의 영향을 깊이 받은 韻書이고, 이 점이 바로 전통 韻書와의 차이라고 하고 있다.

張孝源의 〈《古今韻會擧要》之入聲字研究〉에는 《擧要》에 새롭게 증가된 〔魚〕、〔幺〕、〔合〕母의 분배 상황과 中古의 〈知〉、〈照〉、〈莊〉系 3系의 상황을 논하고 있다.

상기 논문들은 《擧要》가 반영한 音이 北方音이냐, 南方音이냐 하는 것에 치중되거나, 《擧要》 36字母를 각기 논문에서 정한 비교 대상과 연결 고리를 찾아내어 축소시킨 경우가 있으나, 본 논문은 《擧要》 36字母를 모두 그대로 인정하고, 北方音과 南方音을 반영한 부분에 있어선 北方音과 南方音을 모두 반영한 했다고 보고 있다.

2. 研究目的

앞에서 살펴본 연구 概況에서 알 수 있듯이, 中國音韻學에 있어서 《廣韻》에서 近代에 이르기까지 편찬된 韻書는 모두 《切韻》系統

3) 李添富; 〈《古今韻會擧要》與《禮部韻略》三十六母通考比較研究〉, 輔仁學誌 第23期

韻書로, 시대의 변천에 따라 古今南北의 語音을 綜合하고, 수많은 다른 系統의 音을 包含함으로써, 어느 한 地方의 實際語音과 완전히 一致한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따라서 宋代 以後의 文人들이 詩를 지을 때 참고한 《切韻》系統의 韻書는 實際의 口語와는 완전히 다른 길을 걷게된 것이다[4]. 이 점에서 口語를 반영하고 있는 元代의 대표적 韻書 《中原音韻》과 《擧要》는 성격이 다르다고 할 수 있겠다.

《擧要》는 표면상 여전히 전통 韻書의 體制를 따르고 있지만, 각 韻 안에서는 等韻 知識이 응용되어 있어, 모든 글자마다 새롭게 音을 注하고 있고, 새로운 배열을 하고 있다. 그래서 실제 語音 계통을 보다 분명히 볼 수 있게 하였다.

《擧要》의 語音은 中古에서 近代의 교량적인 語音이라고 말할 수 있다[5].

《擧要》의 序文을 살펴보면 《擧要》의 성격을 알 수 있는데, 序文을 살펴보면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 在軒先生黃公公紹, 慨然欲止千有餘年韻書之失, 始秤字書, 作古今韻會. 大較本之說文, 參以籀古隸俗、凡將急就、旁行數落之文, 下至律書方技、樂府、方言, 靡所不究. 而又檢以七音六書, 凡經史子集之正音、次音、叶音、異辭、異義, 與夫事物倫類制度, 纖悉莫不詳說而備載之, 浩乎山海之藏也.
>
> (在軒 선생 黃公 公紹가 感慨하여 천 여 년 동안의 韻書의 잘못을 바로 하고자 하여, 字書를 살펴, 《韻會》를 지었다. 대체적으로 《說文》을 底本으로 하고, 籀文, 古文, 隸書, 俗語, 《凡

4) 安在哲; 〈《韻略匯通》의 音價 推定-《韻略易通》과의 비교를 통하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4. 6. p.1.
5) 董同龢; 《漢語音韻學》, 學生書局, 1972, pp.9~10.

將》, 《急就》와 천하에 두루 흩어져 있는 문장까지도 참고하고 있다. 아래로는 律書, 方技, 樂府, 方言까지도 연구하지 않은 것이 없다. 七音과 六書까지 살피고, 經史子集의 正音、次音、叶音、異辭、異義와 事物, 論類, 制度까지 모두 상세하게 논하지 않은 것이 없이 다 갖추고 있어, 山海에 감추진 것보다도 크다.[6])

라하고 있다. 이 序文에서 《擧要》가 단순한 韻書의 수준을 벗어나, 다양한 서적들을 참고하여 집대성한 서적임을 알 수 있다.

宋末과 元初에는 韻書를 수정하는 데 있어 韻의 수를 줄이는 추세에 있었다. 그렇다면 聲母도 前代에 비해 수가 늘어나지는 않았을 것으로 推定되는데, 王力은 宋代의 聲母는 朱熹의 反切에 근거하여 모두 21개로 再構하였고[7], 羅常培는 元代의 대표적 聲母로 보고 있는 《中原音韻》에서 20개의 聲母가 있다고 再構하고 있어[8], 宋末과 元初의 韻書라 보고 있는 《擧要》시대에도 실질적으로 사용한 聲母의 수는 고작 20여 개 내외였을 것이라고 推定하고 있다.

《擧要》 36字母는 元代라는 한 시대, 南方이나 北方 어느 한 지역의 音만을 반영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따라서 《擧要》는 단일 음계의 韻書가 아니라 종합 음계를 반영한 韻書임을 밝히는 데 본 논문의 연구 목적이 있다.

3. 研究範圍와 方法

6) 《古今韻會擧要》(《影印 文淵閣四庫全書》經部十), 臺灣, 常務印書館. pp.359~360.
7) 王力; 《漢語語音史》, 北京, 中國社會科學出版社, 1985. 5., pp.260~261
8) 羅常培; 〈中原音韻聲類考〉 《史語所集刊》 第2本 第4分(1232刊), 中央研究院 歷史語言研究, 1932.

본 논문의 연구 범위는 《擧要》 36字母로 한정시키지만, 作者가 元代의 현실음을 반영하기 위해 도입한 새로운 형식인 字母韻도 필요하다면 인용하고, 특히 昭武 方言과의 비교에서 黃公紹의 用韻 관계를 살펴 볼 때는 韻母 부분도 언급한다. 이런 연구 범위 내에서 본 논문에서는 《擧要》 36字母의 전반적인 분석을 진행한다. 분석 방법으로는 元代의 대표적인 韻書인 《中原音韻》 聲母와 《擧要》 36字母를 비교하고, 《擧要》 作者의 출신지인 昭武 方言과의 비교를 통해서 《擧要》 36字母와의 관계도 살펴본다.

이러한 연구 범위와 방법을 통해 본 논문에서 다루게 될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제2장에서는 《擧要》의 音價를 牙音, 舌音, 脣音, 齒音, 喉音, 半舌、半齒音의 순서대로 기술하고, 제3장에서는 中古 36字母와 다른 점을 보이고 있는 〈知〉、〈照〉系의 合併과 《擧要》에 새롭게 추가된 [幺]、[魚]、[合] 母를 중심으로 논의해 나간다. 제4장에서는 《中原音韻》과 昭武 方言의 聲母 체계와 《擧要》 36字母를 비교해 본다. 마지막으로 결론 부분에서는 본 논문에서 다룬 내용을 중심으로 《擧要》 36字母는 元代의 실제 語音을 반영하기도 했지만, 결국은 종합 음계가 반영된 韻書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다.

《擧要》 판본으로는 《古今韻會擧要》(《影印 文淵閣四庫全書》 經部十, 臺灣, 常務印書館.)를 채택하고, 《古今韻會擧要》(影印本, 서울, 亞世亞文化社, 1975.)를 참고하고 있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Ⅱ. 《古今韻會擧要》 36字母 音價 再構

이제까지 《擧要》는 元代의 실제 語音을 반영한 韻書로만 초점이 맞춰져 再構되어 왔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는 《擧要》 36字母는 元代의 실제 語音만 반영된 것이 아니고, 《擧要》의 韻例[9], 音例[10], 字例[11], 義例[12]에서 말하고 있는 《禮部韻略》、《集韻》、蒙古韻、《廣韻》 등 舊書의 체제도 따르면서 책을 만들 당시의 語音의 변화도 반영하고 있다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다.

《擧要》는 매 글자마다 검은 바탕에 하얀 글씨로 해당 글자가

---

9) 禮部韻略本以資聲律便檢閱今以韻會補收闕遺增添注釋凡一萬二千六百五十二字(說文籀古或作之字不係數).禮部韻略元收九千五百九十字有因申明續降及諸家補遺續添之字舊於本韻後別作一類今逐韻隨音附入注云禮韻續降禮韻補遺凡三百四十四字(續降六十三字補遺六十一字).江南監本免解進士毛氏晃增修禮部韻略江北平水劉氏淵壬子新刊禮部韻略互有增字今逐韻隨音附入注云毛氏韻增平水韻增凡二千一百四十二字(毛氏增一千七百二十字平水韻增四百三十六字).舊韻雖已屢增然於經子史選中猶有可備引用而未經收載者今逐韻隨音附入注云今增凡六百七十六字.

《古今韻會擧要》(《影印 文淵閣四庫全書》經部十, 臺灣, 常務印書館.) p.360.

10) 吳音角次濁音卽雅音羽次濁音故吳音疑母字有入蒙古韻喩母字今此類並注云蒙古韻音入喩母(說見麻韻牙字注)

《古今韻會擧要》(《影印 文淵閣四庫全書》經部十, 臺灣, 常務印書館.) p.361.

11) 仍依集韻詳載籀古之字注云集韻古作某籀作某

《古今韻會擧要》(《影印 文淵閣四庫全書》經部十, 臺灣, 常務印書館.) pp.361~362

12) 制字之初各有其義施用浸廣訓釋日繁禮部韻略初注甚少亦有無注者諸家增注惟毛氏韻頗祥猶未該備兼不明本義有一義而散釋於數字之下者觀者眩瞀今每字必以說文定著初義其一字而數義者廣韻玉篇爾雅說文字書釋名以次增入其經史訓釋義異字皆援引出處本文仍加又字以發其端凡經子史選文集譜志諸家雜說道梵之書有關義訓靡有不錄凡天文地理人物草木鳥獸郡國姓氏與夫器物制度名數並祥載之凡諸儒考論異同正訛辨惑之說亦全文備述于本字音義之後

《古今韻會擧要》(《影印 文淵閣四庫全書》經部十, 臺灣, 常務印書館.) p.363.

속하는 宮商과 淸濁을 상세히 注하고 있다. 이것은 일종의 聲母의 분류인데, 아래는 《擧要》내에 注를 달고 있는 것에 의해 정리한 《擧要》의 36字母이다:

		牙	舌	重脣	輕脣	齒斗	正齒	喉	半舌	半齒
		角	徵	宮	次宮	商	次商	羽	半徵	半商
	淸	見	端	幫	非	精	知	影		
	次淸	溪	透	滂	敷	淸	徹	曉		
淸擦音	次淸次					心	審	幺		
	濁	群	定	並	奉	從	澄	匣		
	次濁	疑	泥	明	微		娘	喩	來	日
濁擦音	次濁次	魚				邪	禪	合		

《擧要》에서 매 글자마다 注를 달고 있는 角徵宮商羽는 바로 牙舌脣齒喉이다. 宮과 次宮은 重脣音과 輕脣音이다. 次商은 正齒音이고, 商은 齒頭音이다. 전통 韻書에는 淸濁을 단지 4가지로 분류하였는데, 《擧要》에는 次淸次와 次濁次가 추가되었고 이것은 각각 淸擦音과 濁擦音을 가리킨다. 전통 韻書와 비교해 보았을 때 《擧要》에는 〔幺〕、〔魚〕、〔合〕母가 새롭게 증가되었고, 〈知〉、〈照〉系가 合併되었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擧要》 36字母를 나열하고, 문제가 되지 않는 字母들에 대해서는 中古音의 音價를 그대로 따르기로 한다. 그리고 中古 36字母와 차이가 나는 〔幺〕、〔魚〕、〔合〕母와 〔知〕系는 다음 장에서 상세히 다룬다.

中古音 音價는 董同龢의 中古音 再構音價를 따른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幫〉母 /p-/, 〈滂〉母 /p'-/, 〈並〉母 /b'-/, 〈明〉母 /m-/, 〈非〉母 /f-/, 〈敷〉母 /f'-/, 〈奉〉母 /v-/, 〈微〉母 /ɱ-/, 〈端〉母 /t-/, 〈透〉母 /t'-/, 〈定〉母 /d'-/, 〈泥〉母 /n-/, 〈精〉母 /ts-/, 〈淸〉母 /ts'-/, 〈從〉母 /dz'-/, 〈心〉母 /s-/, 〈邪〉母 /z-/, 〈知〉母 /ʈ-/, 〈徹〉母 /ʈ'-/, 〈澄〉母 /ɖ'-/, 〈章〉母 /tɕ-/, 〈昌〉母 /tɕ'-/, 〈船〉母 /dʑ'-/, 〈書〉母 /ɕ-/, 〈禪〉母 /ʑ-/, 〈莊〉母 /tʃ-/, 〈初〉母 /tʃ'-/, 〈崇〉母 /dʒ'-/, 〈生〉母 /ʃ-/, 〈俟〉母 /ʒ-/, 〈見〉母 /k-/, 〈溪〉母 /k'-/, 〈群〉母 /g'-/, 〈疑〉母 /ŋ-/, 〈影〉母 /ʔ-/, 〈曉〉母 /x-/(/h-/), 〈匣〉母 /ɣ-/(/ɦ-/), 〈云〉母 /ɣ-/(/j-/), 〈以〉母 /ø-/, 〈來〉母 /l-/, 〈日〉母 /ɳ-/[13]

《擧要》 36字母는 《擧要》 내에 배열된 순서에 따라 牙音, 舌音, 脣音, 齒音, 喉音, 半舌、半齒音의 순서로 기술한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1. 牙音

《擧要》의 牙音은 〔見〕、〔溪〕、〔群〕、〔疑〕、〔魚〕母이다. 〔見〕、〔溪〕、〔群〕、〔疑〕母는 中古 音價와 변동이 없으므로, 〔見〕母는 不送氣 舌根 濁塞音 /k-/, 〔溪〕母는 送氣 舌根 淸塞音 /k'-/, 〔群〕母는 送氣 舌根 濁塞音 /g'-/, 〔疑〕母는 舌根鼻音 /ŋ-/로 推定한다. 中古의 〈疑〉母는 《擧要》에서는 그대로 〔疑〕母로 남아 있거나, 〔魚〕母 또는 〔喩〕母로 並入되었다. 〔疑〕、〔魚〕、〔喩〕母에 대해서는 제3장에서 자세히 다룬다. 〔疑〕母는 /ŋ-/으로 推定하고, 〔魚〕母는 /ø-/로 推定한다.

따라서 〔見〕、〔溪〕、〔群〕、〔疑〕、〔魚〕母의 音은 각각

13) 董同龢; 《漢語音韻學》, 文史哲出版社, 1981. pp.139~154.

/k-/、/k‘-/、/g‘-/、/ŋ-/、/ø-/로 推定한다.

2. 舌音

《擧要》의 舌音은 〔端〕、〔透〕、〔定〕、〔泥〕母이다. 〔端〕母는 不送氣 舌尖 淸塞音 /t-/, 〔透〕母는 送氣 舌尖 淸塞音 /t‘-/, 〔定〕母는 送氣 舌尖 濁塞音 /d-/, 〔泥〕母는 舌尖 鼻音 /n-/로 推定한다.

따라서 〔端〕、〔透〕、〔定〕、〔泥〕母의 音은 각각 /t-/、/t‘-/、/d-/、/n-/로 推定한다.

3. 脣音

(1)重脣音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擧要》의 重脣音은 〔幫〕、〔滂〕、〔並〕、〔明〕母이다. 〔幫〕母는 不送氣 雙脣 淸塞音 /p-/, 〔滂〕母는 送氣 雙脣 淸塞音 /p‘-/, 〔並〕母는 送氣 雙脣 濁塞音 /b‘-/, 〔明〕母는 雙脣 鼻音 /m-/로 推定한다.

따라서 〔幫〕、〔滂〕、〔並〕、〔明〕母의 音은 /p-/、/p‘-/、/b‘-/、/m-/으로 推定한다.

(2) 輕脣音

《擧要》의 輕脣音은 〔非〕、〔敷〕、〔奉〕、〔微〕母이다.

〔非〕、〔敷〕、〔奉〕、〔微〕母는 重脣音 〈幫〉、〈滂〉、〈並〉、〈明〉母에서 유래되었다.

〔非〕母는 不送氣 脣齒 淸塞擦音 /f-/, 〔敷〕母는 送氣 脣齒 淸

塞擦音 /f'-/, 〔奉〕母는 送氣 脣齒 濁塞擦音 /v-/, 〈微〉母는 《中原音韻》에서는 /v-/로 변화되었고, 王力에 의하면 17세기 이후에 비로소 半母音 /-w-/를 거쳐 母音인 /-u/로 변한 후 〈喩〉、〈疑〉母에 合流되었다고 하였다.[14] 〔微〕母는 脣齒 鼻音 /ɱ-/로 推定한다.

따라서 〔非〕、〔敷〕、〔奉〕、〔微〕母는 /f-/、/f'-/、/v-/、/ɱ-/으로 推定한다.

4. 齒音

(1) 齒頭音

《擧要》의 齒頭音은 〔精〕、〔淸〕、〔從〕、〔心〕、〔邪〕母이다. 〔精〕母는 不送氣 舌尖前 淸塞擦音 /ts-/, 〔淸〕母는 送氣 舌尖前 淸塞擦音 /ts'-/, 〔從〕母는 送氣 舌尖前 濁塞擦音 /dz'-/, 〔邪〕母는 舌尖前 淸擦音 /s-/, 〔邪〕母는 舌尖前 濁擦音 /z-/로 推定한다.

따라서 〔精〕、〔淸〕、〔從〕、〔心〕、〔邪〕母는 /ts-/、/ts'-/、/dz'-/、/s-/、/z-/로 推定한다.

(2) 正齒音

《擧要》의 正齒音은 〔知〕、〔徹〕、〔澄〕、〔娘〕、〔審〕、〔禪〕母이다.

《擧要》 36字母에는 〔知〕、〔徹〕、〔澄〕、〔審〕、〔禪〕母가 한 세트를 이루고, 〈照〉、〈穿〉、〈牀〉母가 없다. 이는《擧要》가 宋元 時代의 중요한 語音變化인 〈知〉、〈照〉系 合併을

14) 王力; 《漢語史稿》, 北京, 中華書局, 1980年, p.131.

반영하였음을 뜻한다.

應裕康은 〈古今韻會擧要反切之研究〉에서 ［娘］母는 ［泥］母와 많이 혼합되어 있고, 《集韻》에서는 〈泥〉、〈娘〉母가 나뉘지 않았는데, 이것은 宋代 語音이 대개 이러하고, 《擧要》에서 ［泥］、［娘］母가 나뉘어 있는 것은, 실제로는 구별이 없다고 하고 있다. 단지 《擧要》가 지어질 당시에는 等韻學의 영향을 깊이 받아서, ［泥］、［娘］母가 나뉘었다고 보고 있다[15]. 董同龢는 《擧要》의 ［泥］、［娘］母는 中古의 〈泥〉母에 속하는데, 《擧要》에서는 명목상 ［泥］、［娘］母를 나누고 있고, 이것은 전통의 36字母를 따르려는 관념에서 온 것이라 보고, 사실상 《擧要》 36字母에서 ［娘］母에 속한 일부 글자들은 이미 ［泥］母라고 보고 있다[16]. 그러나 李添富는 《擧要》의 반절이 《集韻》을 많이 따르고 있고, 《廣韻》、《集韻》에서 〈泥〉、〈娘〉母가 韻圖에서 차지하는 위치로 볼 때, 〈泥〉母는 대체적으로 1, 4等에 위치하고, 〈娘〉母는 2, 3等에 위치해서, 《擧要》의 ［泥］、［娘］母를 等韻의 각도에서 살펴볼 때, ［泥］、［娘］母는 分立되어야 한다[17]고 하고 있다.

［知］母는 不送氣 舌面前 淸塞擦音 /tɕ-/, ［徹］母는 送氣 舌面前 淸塞擦音 /tɕ'-/, ［澄］母는 送氣 舌面前 濁塞擦音 /dʑ'-/, ［審］母는 舌面前 淸濁音 /ɕ-/, ［娘］母는 舌面 全濁 鼻音 /n-/, ［禪］母는 舌面前 濁擦音 /ʑ-/으로 推定한다

따라서 ［知］、［徹］、［澄］、［審］、［娘］、［禪］母의 音

15) 應裕康; 〈古今韻會擧要反切之研究〉, 國立政治大學學報 第8期, pp.312~313.
16) 董同龢; 《漢語音韻學》, 文史哲出版社, 1983, p.194.
17) 李添富; 〈《古今韻會擧要》研究〉, 國立臺灣師範大學 中國文學研究所, pp.208~223

을 각각 /tɕ-/、/tɕʻ-/、/dʑʻ-/、/ɕ-/、/n-/、/ʑ-/로 推定한다.

5. 喉音

《擧要》의 喉音은 〔影〕、〔曉〕、〔幺〕、〔匣〕、〔喩〕、〔合〕母이다.

中古의 〈疑〉母는 《擧要》에서는 어떤 것은 〔疑〕母로 남아있고, 어떤 것은 〔魚〕母 또는 〔喩〕母로 並入되었다. 《擧要》에서는 中古〈疑〉母의 일부는 이미 鼻音性을 消失하였다. 董同龢는 《漢語音韻學》에서 〔疑〕、〔魚〕、〔喩〕母에 관해

〈疑〉母: 中古 〈疑〉母 一等韻字(例: "敖"、"吾"……), 三等開口韻字(例: "宜"、"吟"……) 및 〈云〉母開口韻字(例: "尤"、"炎"……)를 포함하고 있다.

〈魚〉母: 中古 〈疑〉母 二三等合口韻字(例: "頑"、"虞"……) 및 〈云〉母合口韻字(例: "榮"、……)를 포함.

〈喩〉母: 中古〈疑〉母二四等開口韻字(例: "牙"、"妍"……) 및 전체〈以〉母字를 포함함.

와 같이 말하고 있다[18].

《擧要》에서 聲母를 잃어버린 開口字는 〔喩〕母로 들어갔고, 聲母를 잃어버린 合口字는 독립된 字母로 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魚〕母이다. 〔魚〕母가 零聲母의 合口字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원래 〔喩〕母의 合口字도 이 새로운 〔魚〕母에 넣었다.

〔魚〕母와 〔喩〕母는 /ø-/ 로 推定한다.

18) 董同龢; 《漢語音韻學》, 文史哲出版社, 1981. p.194.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曉〕母의 音은 /x-/로 推定한다.

《擧要》의 〔影〕、〔幺〕母는 모두 中古의〈影〉母에 속한다.[19] 이러한 상황은 牙喉音의 口蓋化에서 온 것이다.

〔影〕、〔幺〕母는 /ʔ-/、 /ø-/로 推定한다.

〔合〕母는 《擧要》에서 새로 생긴 聲母로서, 원래는 中古 36字母의 〈匣〉母에서 파생된 새로운 字母다.

〔匣〕、〔合〕母는 /ɣ-/、/ɣi-/로 推定한다.

따라서 〔影〕、〔曉〕、〔幺〕、〔匣〕、〔喩〕、〔合〕母는 각각 /ʔ-/、 /x-/、/ø-/、/ɣ-/、/ø-/、/ɣi-/로 推定한다.

〔幺〕、〔魚〕、〔合〕母에 관해서는 다음 장에서 다시 자세히 다룬다.

5. 半舌、半齒音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1)半舌音

《擧要》의 半舌音은 〔來〕母이다.

〔來〕母의 音은 舌尖 鼻音 /l-/로 推定한다.

(2) 半齒音

《擧要》의 半齒音은 〔日〕母이다.

〔日〕母의 音은 舌面前 鼻塞擦音 /ʑ-/ 로 推定한다.

본 장에서 살펴본 《擧要》 36字母를 도표화하면 다음과 같다:

---

28) 董同龢; 《漢語音韻學》, 文史哲出版社, 1981. p.195.

《擧要》 36字母

	全淸	次淸	次淸次	全濁	次濁	次濁次
重脣音 (宮音)	幫 p	滂 p‘		並 b	明 m	
輕脣音 (次宮音)	非 f	敷 f‘		奉 v	微 ɱ	
舌頭音 (徵音)	端 t	透 t‘		定 d	泥 n	
牙 音 (角音)	見 k	溪 k‘		群 g‘	疑 ŋ	魚 ø
齒頭音 (商音)	精 ts	淸 ts‘	心 s	從 dz‘		邪 z
正齒音 (次商音)	知 ʧ	徹 ʧ‘	審 ʃ	澄 dʒ‘	娘 n	禪 ʒ
喉 音 (羽音)	影 ʔ	曉 x	幺 ø	匣 ɣ	喩 ø	合 ɣi
半舌音 (半徵音)					來 l	
半齒音 (半商徵音)					日 ʒ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Ⅲ. 《古今韻會擧要》 36字母와 中古 36字母와의 異同

1. [知] 系

中古의 〈知〉、〈徹〉、〈澄〉母의 글자와 〈照〉、〈穿〉、〈牀〉、〈審〉、〈禪〉母는 모두 현대 보통화에서 捲舌音으로 읽혀, 두 系의 글자는 나누어지지 않는데 이런 혼합 현상은 宋代의 언어 자료에도 나타났다.

周祖謨는 〈宋代汴洛語音考〉에서 〈知〉、〈徹〉、〈澄〉母는 邵雍의 皇極經世聲音唱和圖의 〈照〉、〈穿〉、〈牀〉母의 순서이지, 〈端〉、〈透〉、〈定〉母의 순서가 아니다[20]고 하였는데, 이것으로 〈知〉、〈照〉系의 독음이 이미 混合되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擧要》 36字母는 [知]、[徹]、[澄]、[娘]、[審]、[禪]母는 한 세트를 이루고 있는데, 中古의 〈照〉、〈穿〉、〈床〉母 부족한 것을 보아 《擧要》에도 宋元 시대의 중요한 語音 변천인 〈知〉、〈照〉系의 合併이 반영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擧要》에서는 이 글자들이 次商이라 하여, [精] 系 옆에 이웃해 두고, 次徹라 하여 [端] 系 옆에 두지 않은 것으로 미루어 보아, 이 시기에는 이미 〈知〉系의 글자는 舌上音이 아니라 正齒音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0) 周祖謨, 〈宋代汴洛語音考〉, 《詞學集》(下), 知仁出版社, 民國 65年 pp.595~596.

2. 〔幺〕母

〔幺〕母

伊: 於脂, 止開三平脂影, 幺夷

鷖: 烏奚, 蟹開四平齊影, 煙奚

烓: --, ----------, 淵畦

娃: 烏瓜, 假合二平麻影, 幺佳

挨: 乙諧, 蟹開二平皆影, 英皆

因: 於眞, 臻開三平眞影, 伊眞

黟: 於斤, 臻開三平殷影, 玄閑

煙: 烏前, 山開四平先影, 因蓮

淵: 烏幺, 山合四平先影, 幺玄

娟: 於緣, 山合三平仙影, 縈綠

幺: 於堯, 效開四平蕭影, 伊堯

要: 於霄, 效開三平宵影, 伊消

幽: 於交, 效開二平肴影, 幺交

坳: 於交, 效開二平肴影, 地坳

鴉: 於加, 假開二平麻影, 幺加

畽: 烏莖, 梗開二平耕影, 幺莖

嬰: 於盈, 梗開三平清影, 伊盈

縈: 於營, 梗合三平清影, 娟營

幽: 於虯, 流開三平幽影, 幺虯

愔: ---, ----------, 伊湮

懕: 一鹽, 咸開三平鹽影, 幺鹽

矮: 烏蟹, 蟹開二上蟹影, 倚蟹

杳: 烏皎, 效開四上篠影, 伊鳥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啞: 於加, 假開二平麻影, 幺下

癮: 於郢, 梗開三上靜影, 幺郢

黝: ---, ----------, 幺糾

黶: 於琰, 咸開三上琰影, 幺琰

黯: 乙減, 咸開二上豏影, 幺減

縊: 於計, 蟹開四去霽影, 幺易

隘: 烏懈, 蟹開二去卦影, 幺解

噫: 於其, 止開三平之影, 乙界

嗯 :---, ----------, 幺邁

宴: 於甸, 山開四去霰影, 伊甸

要: 於霄, 效開三平宵影, 伊消

亞: 衣嫁, 假開二去禡影, 幺駕

鎣: ---, ----------, 縈定

幼: 伊謬, 流開三去幼影, 伊謬

渥: 於角, 江開二入覺影, 乙角

一: 於悉, 臻開三入質影, 益悉

逸: 夷質, 臻開三入質以, 戈質

軋: 烏黠, 山開二入黠影, 乙黠

噎: 烏結, 山開四入屑影, 一結

戹: ---, ----------, 乙革

益: 伊昔, 梗開三入昔影, 伊昔

揖: 伊入, 深開三入緝影, 一入

厭: 於鹽, 咸開三平鹽影, 益淡

押: 烏甲, 咸開二入狎影, 乙甲

〔影〕母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翁: 烏紅, 通合一平東影, 烏公

邕: 於容, 通合三平鍾影, 於容

漪: 於離, 止開三平支影, 於宜

逶: 於爲, 止合三平支影, 邕危

依: 於希, 止開三平微影, 於希

威: 於非, 止合三平微影, 於非

於: 央居, 遇開三平魚影, 衣虛

紆: 憶俱, 遇合三平虞影, 邕俱

烏: 哀都, 遇合一平模影, 汪胡

蛙: 烏媧, 蟹合二平佳影, 烏蝸

哀: 烏開, 蟹開一平哈影, 於開

隈: 烏恢, 蟹合一平灰影, 烏回

贅: ---, ----------, 紆偸

殷: 於斤, 臻開三平殷影, 於斤

煴: ---, ----------, 於云

溫: 烏渾, 臻合一平魂影, 烏昆

恩: 烏痕, 臻開一平痕影, 烏痕

鴛: ---, ----------, 於袁

安: 烏寒, 山開一平寒影, 於寒

剜: 一丸, 山合一平桓影, 烏丸

彎: 烏關, 山合二平刪影, 烏關

焉: 於乾, 山開三平仙影, 於虔

妖: 於喬, 效開三平宵影, 於喬

鑣: ---, ----------, 於刀

阿: 烏何, 果開一平歌影, 於何

倭: 烏禾, 果合一平戈影, 烏禾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窈: 烏吴, 假合二去祃影, 烏瓜

央: 於良, 宕開三平陽影, 於良

汪: 烏光, 宕合一平唐影, 烏光

英: 於驚, 梗開三平庚影, 於驚

泓: 烏宏, 梗合二平耕影, 烏宏

憂: 於求, 流合三平尤影, 於求

謳: 烏侯, 流合一平侯影, 烏侯

音: 於金, 深開三平侵影, 於金

諳: ---, ----------, 烏含

淹: ---, ----------, 衣廉

醃: ---, ----------, 於嚴

蓊: 烏紅, 通合一平東影, 烏孔

擁: 余隴, 通合三上腫以, 委勇

倚: 於綺, 止開三上紙影, 隱綺

謚: ---, ----------, 隱已

委: 於詭, 止合三上紙影, 鄔毁

扆: 於豈, 止開三上尾影, 隱豈

崽: ---, ----------, 崽崔

塢: 安古, 遇合一上姥影, 於五

傴: 於武, 遇合三上麌影, 委羽

椳: 烏恢, 蟹合一平灰影, 鄔賄

欸: ---, ----------, 倚亥

隱: 於謹, 臻開三上隱影, 倚謹

惲: 於粉, 臻合三上吻影, 委粉

穩: 烏本, 臻合一上混影, 鄔本

偃: 於幰, 山開三上阮影, 於幰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宛: 於袁, 山合三平元影, 委遠

盌: ---, ----------, 鄔管

蜎: ---, ----------, 於泫

夭: 於喬, 效開三平宵影, 於兆

拗: 於絞, 效開二上巧影, 於絞

媼: 烏晧, 效開一上晧影, 烏皓

嬰: ---, ----------, 倚可

婐: ---, ----------, 烏果

坱: ---, ----------, 倚朗

鞅: 於兩, 宕開三上養影, 倚兩

影: 於丙, 梗開三上梗影, 於景

潁: 于平, 梗合三平庚云, 烏迥

甌: 烏后, 流合一上厚影, 於口

飲: 於錦, 深開三上寢影, 於錦

晻: 依儉, 咸開三上琰影, 鄔感

奄: 依儉, 咸開三上琰影, 衣撿

埯: 於广, 咸開三上儼影, 倚厂

甕: 烏貢, 通合一去送影, 烏貢

雍: 於容, 通合三平鍾影, 於用

意: 於記, 止開三去志影, 於記

懿: 乙冀, 止開三去至影, 乙賛

恚: 胡桂, 蟹合四去霽匣, 於避

餧: 於僞, 止合三去寘影, 於僞

衣: 於希, 止開三平微影, 於既

尉: 於胃, 止合三去未影, 紆胃

猗: ---, ----------, 依據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嫗: 衣遇, 遇合三去遇影, 威遇

汙: 烏路, 遇合一去暮影, 烏故

瘞: 於罽, 蟹開三去祭影, 於罽

藹: 於蓋, 蟹開一去泰影, 於蓋

薈: 烏外, 蟹合一去泰影, 烏外

穢: 於廢, 蟹合三去廢影, 烏廢

愛: 烏代, 蟹開一去代影, 於代

靄: 於問, 臻合三去問影, 紆問

堰: 於建, 山開三去願影, 於建

怨: 於願, 山合三去願影, 紆願

按: 烏旰, 山開一去翰影, 於肝

惋: ---, ----------, 烏貫

綰: 烏板, 山合二上濟影, 烏患

晏: 烏澗, 山開二去諫影, 於諫

突: ---, ----------, 一叫

橈: ---, ----------, 女教

奧: 五到, 效開一去號疑, 於到

涴: 烏臥, 果合一平過影, 烏臥

盎: 烏浪, 宕開一去宕影, 於浪

怏: 於亮, 宕開三去漾影, 於亮

映: ---, ----------, 於慶

應: 於陵, 曾開三平蒸影, 於證

漚: 烏侯, 流合一平侯影, 於侯

蔭: 於禁, 深開三去沁影, 於禁

暗: 烏紺, 咸開一去勘影, 烏紺

奄: 依儉, 咸開三上琰影, 於瞻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厭: 於鹽, 咸開三平鹽影, 於艷

黯: ---, ---------- , 於陷

屋: 烏谷, 通合一入屋影, 烏谷

彧: 於六, 通合三入屋影, 乙六

沃: 烏酷, 通合一入沃影, 烏酷

乙: 於筆, 臻開三入質影, 億姞

鬱: 紆物, 臻合三入物影, 紆勿

噦: 於月, 山合三入月影, 於月

謁: 於歇, 山開三入月影, 於歇

遏: 烏葛, 山開一入曷影, 阿葛

斡: 烏括, 山合一入末影, 烏括

婠: ---, ----------, 烏八

抉: 古穴, 山合四入屑見, 古穴

約: 於略, 宕開三入藥影, 乙却

噦: 於月, 山合三入月影, 屋郭

謁: 於歇, 山開三入月影, 鬱縛

惡: 烏各, 宕開一入鐸影, 遏鄂

擭: 胡郭, 宕合一入鐸匣, 屋虢

億: 於力, 曾開三入職影, 乙力

域: 雨逼, 曾合三入職云, 影逼

邑: 於汲, 深開三入緝影, 乙及

姶: ---, ----------, 遏合

浥: 於汲, 深開三入緝影, 乙業

〔ㄠ〕母는 전통의 36字母에는 없던 것으로, 《擧要》에서 새롭게 증가되었다. 〔ㄠ〕母에 배열된 글자는 中古의 〈影〉母에 배열되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어 있었다

《擧要》 시대는 中古音이 近代音으로 넘어가는 과도기라고 할 수 있으니, 이 喉塞音이 소실되는 과정 중에서, 어떤 글자는 여전히 喉塞音을 보유하고 있고, 어떤 글자는 이미 零聲母로 변하는 이런 상황하에 喉塞音을 보유하고 있었던 〈影〉母가 零聲母의 〔ㅈ〕母로 변하였다.

3. 〔魚〕母

〔魚〕母

顒: 魚容, 通合三平鍾疑, 魚容

危: 魚爲, 止合三平支疑, 虞爲

帷: 洧非, 止合三平脂云, 于龜

爲: 薳支, 止合三平支云, 于嬀

韋: 雨非, 止合三平微云, 于非

巍: 語韋, 止合三平微疑, 語韋

虞: 遇俱, 遇合三平虞疑, 元俱

于: 羽俱, 遇合三平虞云, 雲俱

嵬: 五灰, 蟹合一平灰疑, 魚回

筠: 爲贇, 臻合三平眞云, 于倫

雲: 王分, 臻合三平文云, 于分

元: 愚袁, 山合三平元疑, 愚袁

袁: 雨元, 山合三平元云, 于元

頑: 五還, 山合二平刪疑, 魚鰥

員: 王分, 臻合三平文云, 于權

王: 雨方, 宕合三平陽云, 于方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榮: 永兵, 梗合三平庚云, 于營

齲: 五婁, 流合一平侯疑, 魚侯

顑: ---, ----------, 五委

洧: 榮美, 止合三上旨以, 羽軌

蹙: ---, ----------, 羽鬼

語: 魚巨, 遇開三上語疑, 語許

躩: ---, ----------, 魚矩

羽: 王矩, 遇合三上躩云, 王矩

騃: 五駭, 蟹開二上駭疑, 語駭

隃: 于敏, 臻合三上軫云, 羽敏

扜: ---, ----------, 羽粉

阮: 虞遠, 山合三上阮疑, 五遠

遠: 雲阮, 山合三上阮云, 雨阮

限: 胡簡, 山開二上産匣, 魚懇

往: 于兩, 宕合三上養云, 魚雨

永: 于憬, 梗合三上梗云, 于景

僞: 危睡, 止合三去寘疑, 于睡

位: 于愧, 止合三去至云, 喻累

爲: 薳支, 止合三平支云, 于僞

胃: 于貴, 止合三去未云, 于貴

魏: 魚貴, 止合三去未疑, 虞貴

御: 牛倨, 遇開三去御疑, 魚據

遇: 牛具, 遇合三去遇疑, 元具

芋: 王遇, 遇合三去遇云, 王遇

衛: 于歲, 蟹合三去祭云, 于歲

瞶: ---, ----------, 魚怪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磑：五對，蟹合一去隊疑，魚對

垽：魚覲，臻開三去震疑，語靳

運：王問，臻合三去問云，王問

願：魚怨，山合三去願疑，虞怨

遠：雲阮，山合三上阮云，于願

瑗：雨元，山合三平元云，于眷

傲：烏到，效開一去號影，疑到

柳：---，----------，魚浪

暀：---，----------，于況

詠：爲命，梗合三去映云，爲命

囿：于救，流合三去宥云，于六

玉：魚欲，通合三入燭疑，虞欲

風日：莫狄，梗開四入錫明，越筆

風胃：---，----------，玉勿

崛：---，----------，魚屈

月：魚厥，山合三入月疑，魚厥

钀：---，----------，語訐

刖：魚厥，山合三入月疑，五括

：---，----------，越縛

〔疑〕母

山兇：---，----------，吾江

疑：語其，止開三平之疑，疑其

沂：魚衣，止開三平微疑，魚疑

吾：五乎，遇合一平模疑，訛胡

皚：五來，蟹開一平咍疑，疑開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銀: 語巾, 臻開三平眞疑, 疑巾

齦: 康很, 臻開一上很溪, 疑斤

垠: 語巾, 臻開三平眞疑, 五根

岏: 五丸, 山合一平桓疑, 吾官

顏: 五姦, 山開二平刪疑, 牛姦

焉: 於乾, 山開三平仙影, 尤虔

鴞: 于嬌, 效開三平宵云, 于嬌

敖: 五勞, 效開一平豪疑, 牛刀

莪: 五何, 果開一平歌疑, 牛何

卬: ---, ----------, 疑剛

迎: 語京, 梗開二平庚疑, 疑京

競: 居陵, 梗開三平蒸見, 居陵

凝: 魚陵, 曾開三平蒸疑, 疑陵

尤: 羽求, 流合三平尤云, 疑求

牛: 語求, 流合三平尤疑, 疑尤

吟: 魚金, 深開三平侵疑, 魚音①

嚴: 語韽, 咸開三平嚴疑, 疑枚

炎: 于廉, 咸開三平鹽云, 疑廉

嵒: ---, ----------, 疑咸

巖: 五銜, 咸開二平銜疑, 疑衛

矣: 于紀, 止開三上止云, 于已

五: 疑古, 遇合一上姥疑, 疑古

捩: ---, ----------, 吾禮

隗: 五罪, 蟹合一上賄疑, 五賄

听: ---, ----------, 疑謹

巖: 魚蹇, 山開三上獮疑, 語偃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輗: ---, ----------, 五管

巘: 魚蹇, 山開三上獮疑, 語蹇

膺: 子兗, 山合三上獮精, 子兗

我: 五可, 果開一上哿疑, 語可

瓦: 五寡, 假合二上馬疑, 五寡

駉: ---, ----------, 語朗

仰: 魚兩, 宕開三上養疑, 語兩

有: 云久, 流合三上有云, 云九

偶: 五口, 流合一上厚疑, 語口

吟: 魚金, 深開三平侵疑, 疑錦②

顉: ---, ----------, 五感

儼: 魚埯, 咸開三上儼疑, 疑撿

義: 宜寄, 止開三去寘疑, 宜寄

劓: 魚器, 止開三去至疑, 疑器④

毅: 魚旣, 止開三去未疑, 疑旣

劓: 魚旣, 止開三去未疑, 牛倒⑤

艾: 五蓋, 蟹開一去泰疑, 牛蓋

礙: 五溉, 蟹開一去代疑, 牛代

乂: 魚肺, 蟹開三去廢疑, 疑刈

憖: ---, ----------, 疑僅

諢: 五困, 臻合一去慁疑, 吾困

岸: 五旰, 山開一去翰疑, 疑旰

玩: 五換, 山合一去換疑, 五換

藽: ---, ----------, 五忠

彦: 魚變, 山開三去線疑, 疑戰

顩: ---, ----------, 五弔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餓: 五个, 果開一去箇疑, 牛箇

臥: 吾貨, 果合一去過疑, 王貨

仰: 魚兩, 宕開三上養疑, 疑向

迎: 語京, 梗開二平庚疑, 疑慶

凝: 魚陵, 曾開三平蒸疑, 住孕

宥: 于救, 流合三去宥云, 尤救

偶: 五口, 流合一上厚疑, 牛遘

吟: 魚金, 深開三平侵疑, 宜禁③

釅: 魚欠, 咸開三去釅疑, 凝窆

疙: ---, ----------, 魚乞

兀: 五忽, 臻合一入沒疑, 五忽

嶭: ---, ----------, 牙葛

齾: 五鎋, 山開二入鎋疑, 牛轄

孽: ---, ----------, 魚列

虐: 魚約, 宕開三入藥疑, 逆約

咢: 五各, 宕開一入鐸疑, 蓮各

逆: 宜戟, 梗開三入陌疑, 仡戟

鶂: 五歷, 梗開四入錫疑, 倪歷

嶷: 語其, 止開三平之疑, 鄂力

岌: 魚及, 深開三入緝疑, 逆及

曄: ---, ----------, 疑輙

業: 魚怯, 咸開三入業疑, 逆怯

〔疑〕母를 살펴보면 같은 ①、②、③의 "吟"字가 〔疑〕母에 같이 나란히 있으면서도 《擧要》 卷十、平聲下、十二、侵獨用에 배열된 "吟"은 反切로 【魚音切】[21]을 사용하고 있으며, 卷十六、上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聲、二十七、寢獨用에 배열된 "吟"은 反切로 【疑錦切】[22]을 사용하고 있고, 또한 卷二十四、去聲、二十七、沁獨用에는 【宜禁切】[23]이 사용되고 있어, 같은 "吟"字가 각각 다른 反切을 사용하고 있다. ④、⑤의 "劍"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24]. 이러한 예는 같은 〔疑〕母에만도 "仰"과 "偶" 이러한 예는 〔匣〕母의 "行"字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25].

〔喩〕母

融: 以戎, 通合三平東以, 余中

容: 餘封, 通合三平鍾以, 餘封

夷: 以脂, 止開三平脂以, 延知

飴: 與之, 止開三平之以, 盈之

惟: 以追, 止合三平脂以, 夷佳

余: 以諸, 遇開三平魚以, 羊諸

俞: 羊朱, 遇合三平虞以, 容朱

俔: 五稽, 蟹開四平齊疑, 研奚

匡: ---, ----------, 宜佳

匀: 羊倫, 臻合三平諄以, 俞倫

庾: ---, ----------, 夷眞

沿: 與專, 山合三平仙以, 全專

---

21) 《影印 文淵閣四庫全書》經部十, 常務印書館, p.554.
22) 《影印 文淵閣四庫全書》經部十, 常務印書館, p.644.
23) 《影印 文淵閣四庫全書》經部十, 常務印書館, p.749.
24) 《擧要》 卷十七、去聲、四絳獨用、【疑器切】로 卷十九、去聲、八齋與祭通、【牛倒切】로 되어 있다.
《影印 文淵閣四庫全書》經部十, 常務印書館, p.656., p.678.
25) "行"字는 《擧要》卷八、平聲下、八庚與耕淸通에서는 【何庚切】로, 卷二十三、去聲、二十四敬與諍勁通에서는 【下孟切】로 표기되어 있다.
《影印 文淵閣四庫全書》經部十, 常務印書館, p.528., p.739.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妍: 五堅, 山開四平先疑, 倪堅

延: 以然, 山開三平仙以, 夷延

遙: 餘昭, 效開三平宵以, 餘招

謷: ---, ----------, 牛交

牙: 五加, 假開二平麻疑, 牛加

邪: 祥吏, 止開三去志邪, 余遮

陽: 與章, 宕開三平陽以, 余章

盈: 以成, 梗開三平清以, 怡成

營: 余傾, 梗合三平清以, 維傾

蠅: 余陵, 曾開三平蒸以, 余陵

由: 以周, 流合三平尤以, 夷周

淫: 餘針, 深開三平侵以, 夷針

淹: 央炎, 咸開三平鹽影, 衣廉

鹽: 余廉, 咸開三平鹽以, 余廉

勇: 余隴, 通合三上腫以, 尹竦

以: 羊已, 止開三上止以, 養里

酏: 弋支, 止開三平支以, 演爾

唯: 以追, 止合三平脂以, 愈水

與: 余呂, 遇開三上語以, 演女

詡: 況羽, 遇合三上虞曉, 火羽

庾: ---, ----------, 勇主

引: 余忍, 臻開三上軫以, 以忍

尹: 于準, 臻合三上準云, 庾準

眼: 五限, 山開二上産疑, 語限

沇: ---, ----------, 以轉

演: 以淺, 山開三上獮以, 以淺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洫: ---, ----------, 以紹

齩: 五巧, 效開二上巧疑, 五巧

雅: 五下, 假開二上馬影, 語下

社: 常者, 假開三上馬禪, 常者

野: 羊者, 假開三上馬以, 以者

養: 餘兩, 宕開三上養以, 以兩

涅: ---, ----------, 以郢

潁: 餘頃, 梗合三上靜以, 庾頃

酉: 與久, 流合三上有以, 以九

琰: 以冉, 咸開三上琰以, 以冉

用: 余頌, 通合三去用以, 余頌

易: 羊益, 梗開三入昔以, 以豉

肄: 乙冀, 止開三去至影, 羊至

異: 羊吏, 止開三去志以, 羊吏

遺: 以醉, 止合三去至以, 以醉

豫: 羊洳, 遇開三去御以, 羊茹

裕: 羊戍, 遇合三去遇以, 俞戍

曳: 餘制, 蟹開三去祭以, 以制

叡: ---, ----------, 俞芮

胤: ---, ----------, 羊進

膺: ---, ----------, 魚澗

衍: 以淺, 山開三上獮以, 延面

掾: ---, ----------, 俞絹

硯: 吾甸, 山開四去霰疑, 倪甸

燿: ---, ----------, 弋笑

樂: 盧各, 宕開一入鐸來, 魚散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訝: 五駕, 假開二去禡影, 五駕

夜: 羊謝, 假開三去禡以, 寅謝

漾: 餘亮, 宕開三去漾以, 餘亮

孕: 以證, 曾開三去證以, 以謹

狱: 余救, 流合三去宥以, 余敕

豔: 以贍, 咸開三去豔以, 以贍

育: 余六, 通合三入屋以, 余六

錄: 力玉, 通合三入燭來, 龍玉

嶽: ---, ----------, 逆角

逸: 夷質, 臻開三入質以, 弋質

聿: 餘律, 臻合三入術以, 以律

齧: 五結, 山開四入屑疑, 倪結

泄: ---, ----------, 羊列

穴: 胡決, 山合四入屑匣, 胡決

悅: 弋雪, 山合三入薛以, 欲雪

藥: 以灼, 宕開三入藥以, 弋約

彏: ---, ----------, 悅縛

額: 五陌, 梗開二入陌疑, 鄂挌

睪: ---, ----------, 夷益

役: 營隻, 梗開三入昔以, 營隻

弋: 與職, 曾開三入職以, 逸職

熠: 爲立, 深開三入緝云, 弋入

葉: 書涉, 咸開三入葉書, 弋涉

[魚]母는 中古의 36字母에는 없던 것인데, 《擧要》 작자가 이 字母를 신설한 것은 반드시 이유가 있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魚］母의 글자가 본래 〈疑〉母에 속해 있어서, 《擧要》가 분별해낸 새로운 聲母인 ［魚］母를 부정해서, ［疑］、［魚］母가 실제로 동일한 聲母라고 해선 안 된다. 《擧要》의 작자는 聲韻 지식에 밝아, 기왕 전통의 것을 과감히 무시하고 새로운 ［魚］母를 분별했다면 이 ［魚］母에 새로운 변화를 나타냈을 것이고, ［疑］母와는 분명히 다른 聲母이었을 것이다.

《擧要》의 《宜》字 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 《蒙古韻略》에는 宜字가 疑母에 속했는데, 舊音은 魚母에 속했으나, 지금은 蒙古韻에 의해 개정한다.
> (《蒙古韻略》宜字屬疑母, 舊音屬魚母, 今依蒙古韻更定.)

［魚］母중에 본래 〈疑〉母에 속한 것을 제외하고는 또한 적지 않은 〈爲〉母의 글자가 있다.

［疑］母의 글자에는 〈喩〉母에 속하는 몇 개의 글자가 있다.

卷首의 音例에 의하면:

> 吳音의 疑母字는 蒙古韻 喩母에 들어가는 것이었다.
> (吳音疑母字, 有入蒙古韻喩母字.),

이것은 舌根鼻音聲母(/ŋ-/)가 이미 소실되어 零聲母로 되었다는 것을 말한다.

《擧要》의 反切은 기본적으로 《集韻》을 베꼈지만, 《集韻》의 反切上字가 魚로 쓰인 것을 《擧要》에서는 그것들을 ［疑］母의 글자에 배열하고 있다.

원래 《集韻》에서는 ［疑］、［魚］母에 배열된 글자들은 나뉘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지 않았었는데, 《擧要》에서는 구별이 있게 되었다.

이상에서 결론을 얻어 낼 수가 있는데 《擧要》 시대에는 적지 않은 〈疑〉母字가 聲母를 소실하였고, 聲母를 소실한 開口字는 〔喩〕母에 들어 가게되었고, 聲母를 잃은 合口字는 독립적으로 하나의 聲母를 이루었는데, 이것이 〔魚〕母이다. 〔魚〕母가 零聲母의 合口字가 되니, 원래 〈喩〉母에 속해 있었던 合口字도 이 새로운 〔魚〕母에 들어가게 되었다. 〈喩〉母에 속했던 合口字는 주로 모두 中古 早期의 〈爲〉母였다. 그래서 魚母의 성립은 零聲母의 合口字를 수용하게 되는 것이다[26].

〈疑〉母는 周德淸의 《中原音韻》에 이르러서는 聲母는 이미 완전히 소실되었다[27]. 그러나 《擧要》의 語音 계통에 일부 보존된 것은 聲母 소실의 과도기 단계였기 때문이다.

4. 〔合〕母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擧要》의 모든 〔匣〕、〔合〕母의 글자들을 가지고 비교를 한다:

(1) 〔合〕母

洪: 戶公, 通合一平東匣, 胡公

滃: 古巷, 江開二去絳見, 胡公

懷: 戶乖, 蟹合二平皆匣, 乎乖

寒: 胡安, 山開一平寒匣, 河干

26) 竺家寧, 《古今韻會擧要的語音系統》, 臺灣學生書局, pp.39~40.
27) 董同龢; 《漢語音韻學》, 文史哲出版社, 1983年, p.62.

和: 戶戈, 果合一平戈匣, 胡戈

華: 戶花, 假合二平麻匣, 胡瓜

黃: 胡光, 宕合一平唐匣, 胡光

旁: 胡郎, 宕開一平唐匣, 寒剛

橫: 戶盲, 梗合二平庚匣, 胡盲

弘: 胡肱, 曾合一平登匣, 胡肱

恒: 胡登, 曾開一平登匣, 胡澄

侯: ---, ----------, 胡溝

含: 胡南, 咸開一平覃匣, 胡南

酣: 胡甘, 咸開一平談匣, 胡甘

鴻: 戶公, 通合一平東匣, 胡孔

戶: 侯古, 遇合一上姥匣, 後五

混: 胡本, 臻合一上混匣, 戶

很: 胡懇, 臻開一上很匣, 下懇

皓: 胡老, 效開一上皓匣, 古老

禍: 胡果, 果合一上果匣, 合果

荷: 胡歌, 果開一平歌匣, 合可

閘: ---, ----------, 許下

踝: 胡瓦, 假合二上馬匣, 戶瓦

厚: 胡口, 流合一上厚匣, 很口

護: 胡誤, 遇合一去暮匣, 胡故

害: 胡蓋, 蟹開一去泰匣, 合蓋

會: 古外, 蟹合一去泰見, 古外

潰: 呼對, 蟹合一去隊匣, 胡對

邂: 胡介, 蟹開二去怪匣, 戶代

劾: 胡得, 曾開一入德匣, 戶槭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翰: 胡安, 山開一平寒匣, 侯旰

換: 胡換, 山合一去換匣, 胡玩

骭: ---, ----------, 下患

幻: 胡辨, 山合二去襉匣, 胡慣

效: 胡教, 效開二去效匣, 後教

號: 胡刀, 效開一平豪匣, 胡到

賀: 胡箇, 果開 一去箇匣, 何佐

和: 胡臥, 果合一去過匣, 胡臥

華: 胡化, 假合二去禡匣, 胡化

沆: 胡郎, 宕開一上蕩匣, 合浪

橫: 戶盲, 梗合二平庚匣, 戶孟

候: 胡遘, 流合一去候匣, 胡茂

憾: 胡紺, 咸開一去勘匣, 胡紺

轂: 胡谷, 通合一入屋匣, 胡谷

搰: ---, ----------, 胡骨

曷: 胡葛, 山開一入曷匣, 何葛

活: 戶括, 山合一入末匣, 古活

滑: 戶八, 山合二入黠匣, 戶八

鶴: 下各, 宕開 一入鐸匣, 曷各

穫: 胡郭, 宕合一入鐸匣, 黃郭

獲: 胡麥, 梗合二入麥匣, 胡陌

或: 胡國, 曾合一入德匣, 獲北

劾: 胡得, 曾開一入德匣, 紇則

合: 侯閤, 咸開一入合匣, 曷閤

盍: 胡臘, 咸開一入盍匣, 轄臘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匣〕母

雄: 胡弓, 通合三平東匣, 胡弓

磺: ---, ----------, 乎功

降: 下江, 江開二平江匣, 胡江

胡: 戶吳, 遇合一平模匣, 洪孤

兮: 胡鷄, 蟹開四平齊匣, 弦鷄

攜: 戶圭, 蟹合四平齊匣, 玄圭

諧: 戶皆, 蟹開二平皆匣, 雄皆

胲: 戶佳, 蟹開二平佳匣, 戶佳

回: 戶恢, 蟹合一平灰匣, 胡隈

孩: 戶來, 蟹開一平咍匣, 何開

礥: ---, ----------, 下珍

魂: ---, ----------, 胡昆

痕: 戶恩, 臻開一平痕匣, 胡恩

桓: 胡官, 山合一平桓匣, 胡官

閒: 何間, 山開二平山匣, 居閑

還: 戶關, 山合一平桓匣, 胡關

湲: ---, ----------, 胡鰈

玄: 胡涓, 山合四平先匣, 胡涓

賢: 胡田, 山開四平先匣, 戶千

爻: ---, ----------, 又效

豪: 胡刀, 效開一平豪匣, 乎刀

何: 胡歌, 果開一平歌匣, 寒歌

遐: 胡加, 假開二平麻匣, 何加

行: 戶庚, 梗開二平庚匣, 何庚

莖: 戶耕, 梗開二平耕匣, 何耕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形: 戶庚, 梗開二平庚匣, 戶經

熒: 戶扃, 梗合四平青匣, 戶扃

嫌: 戶兼, 咸開四平咸匣, 賢兼

咸: 胡讒, 咸開二平咸匣, 胡讒

銜: 戶監, 咸開二平銜匣, 平監

項: 胡講, 江開二上講匣, 戶講

傒: 胡鷄, 蟹開四平齊匣, 戶禮

夥: 呼果, 果合一上果曉, 胡買

蟹: 胡買, 蟹開二上蟹匣, 下買

亥: 胡改, 蟹開一上海匣, 下改

瘕: ---, ----------, 鄔賄

旱: 胡笴, 山開一上旱匣, 合罕

緩: 胡管, 山合一上緩匣, 合管

睆: ---, ----------, 合版

限: 胡簡, 山開二上產匣, 下簡

泫: 胡畎, 山合四上銑匣, 胡犬

峴: 胡典, 山開四上銑匣, 胡典

晅: ---, ----------, 胡了

佼: 古巧, 效開二上巧見, 古巧

下: 胡雅, 假開二上馬匣, 亥雅

沆: 胡郎, 宕開一上蕩匣, 下朗

晃: 胡廣, 宕合一上蕩匣, 戶廣

杏: 何梗, 梗開二上梗匣, 下梗

艸: ---, ----------, 合猛

逈: 戶頂, 梗合四上迥匣, 戶茗

悻: 胡頂, 梗開四上迥匣, 下頂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頷: 胡感, 咸開一上感匣, 戶感

豏: ---, ----------, 下添

豏: ---, ----------, 下斬

檻: 胡黯, 咸開二上檻匣, 戶黯

哄: 胡貢, 通合一去送匣, 胡貢

巷: 胡絳, 江開二去絳匣, 胡降

慧: 胡桂, 蟹合四去霽匣, 胡計

系: 胡計, 蟹開四去霽匣, 胡計

邂: 胡懈, 蟹開二去卦匣, 下解

械: 胡介, 蟹開二去怪匣, 下介

壞: 胡怪, 蟹合二去怪匣, 胡怪

話: 下快, 蟹合二去夬匣, 戶快

畫: 胡卦, 蟹合二去卦匣, 胡界

慁: 胡困, 臻合一去慁匣, 胡困

恨: 胡艮, 臻開一去恨匣, 合艮

莧: 侯襉, 山開二去襉匣, 狄澗

患: 胡慣, 山合二去諫匣, 胡慣

縣: 黃練, 山合四去霰匣, 熒絹

見: 古電, 山開四去霰見, 經句

暇: 胡駕, 假開二去禡匣, 亥駕

行: 戶庚, 梗開二平庚匣, 下孟

脛: 胡定, 梗開四去徑匣, 形定

陷: 戶鍚, 咸開二去陷匣, 乎鍚

鬮: ---, ----------, 胡懺

鵠: 胡沃, 通合一入沃匣, 胡沃

學: 胡覺, 江開二入覺匣, 轄覺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勃: 下沒, 臻開一入沒匣, 下沒

磴: 初鎝, 山開二入鎝初, 下瞪

黠: 胡八, 山開二入黠匣, 下八

纈: 胡結, 山開四入屑匣, 奚結

穴: 胡決, 山合四入屑匣, 古穴

縛: 符鑊, 宕合三入藥奉, 伏約

格: 古伯, 梗開二入陌見, 轄格

覈: 下革, 梗開二入麥匣, 下革

檄: 胡狄, 梗開四入錫匣, 刑狄

協: 胡頰, 咸開四入帖匣, 徽頰

洽: 侯夾, 咸開二入洽匣, 轄夬

狎: 胡甲, 咸開二入狎匣, 轄甲

〔合〕母는 《擧要》에 새로 증가된 字母이다. "合"이라는 글자 자체는 전통의 〈匣〉母의 글자였다. 그러면 《擧要》중의 〔匣〕〔合〕母의 구별은 어디에 있는가?

竺家寧은 〔匣〕母는 모두 細音字인데, 〔合〕母는 모두 洪音字이고 단지 20여字의 예외가 있지만 전체 126例 중에 1/6에 불과할 뿐이고, 게다가 이 예외의 글자들은 모두 洪音의 〔合〕母를 〔匣〕母로 잘못 넣은 것인데, 이것은 전통적인 영향을 받은 것으로 〔合〕母가 원래 모두 〈匣〉母였기 때문이다[28]라고 하고 있다.

董同龢는 《漢語音韻學》에서

> 中古匣母的一等韻開口字, 韻會歸合; 一等韻合口、二等韻與四等韻字, 韻會歸匣.

28) 竺家寧; 《古今韻會擧要的語音系統》, 臺灣學生書局, 1986, p.45.

(中古 〈匣〉母의 開口一等의 글자는 《擧要》의 〔合〕母에 귀속되었다; 合口一等과 二四等字는 《擧要》에서 〔匣〕에 귀속되었다.)

고 하고 있다[29].

많은 2等 舌根字는 모두 細音의 〔匣〕母에 들어 갈 수 있으니, 이 글자들이 《擧要》시대에 이미 早期의 洪音에서 細音으로 변하게 된 것이다.

洪, 細의 구분은 聲母의 발음에 당연히 영향을 미칠 것이다. 〔合〕母는 일반적인 舌根濁擦音의 聲母였는데, 〔匣〕母는 細音의 영향을 받은, 다소 顎化를 띤 舌根 濁擦音이다. 이것은 《擧要》의 작자가 〔匣〕、〔合〕母를 나눈 까닭이다. 그러나 두 개의 聲母의 音値는 비록 다르지만, 音位는 여전히 한 개의 類 이니, 《擧要》作者는 音値의 차이에 근거하여 두 개의 聲母를 만들었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본 논문에서 《擧要》의 모든 〔匣〕、〔合〕母를 살펴본 결과, 開合의 차이로 보고 있는 董同龢 설에 비해 洪音과 細音의 차이로 보고 있는 竺家寧의 설이 董同龢에 비해 오차가 적은 것으로 보아 여기서는 洪音과 細音의 차이로 보고 있는 竺家寧의 결과를 따르기로 한다.

〔合〕母는 《擧要》에 새로 증가된 또 다른 하나의 聲母이다. "合"이라는 글자 그 자체는 전통의 〈匣〉母字였다.

---

29) 董同龢; 《漢語音韻學》, 文史哲出版社, 1983年, p.195

Ⅳ. 《中原音韻》및 昭武 方言과의 比較

1. 《中原音韻》의 聲母 體系

《中原音韻》이 元代의 語音을 대표한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다. 특히 서론에서도 언급했다시피 《中原音韻》 계통으로 元代의 실제 語音을 살피는 것은 타당한 일이다. 다만 《擧要》가 元初의 語音을 字母韻과 36字母에 반영하려고 했던 노력은 간과해선 안 되는 것이다. 사실 《擧要》의 연구 가치도 여기에 있다고 봐야 된다.

굳이 본 논문에서 《中原音韻》을 元代 대표음이라 인정하면서, 본 장에서 《擧要》 36字母와 공통점을 별로 갖지 못하는 《中原音韻》의 聲母 계통을 소개하려는 데는 이유가 있다. 이제까지 많은 학자들이 《中原音韻》의 20여 개 聲母와 전통 36字母와 비교하면서, 中古音 全濁音의 淸音化와 舌上音이 正齒音으로 합해진 것 등에 대해 언급하였다. 그러나 《切韻》계통의 전통 韻書들이 詩의 압운을 위해 지어진 '詩韻書'임에 반해, 《中原音韻》은 北曲을 짓기 위해 지어진 '曲韻書'임에 크게 의미를 두어 다시 살펴보면, 전통 韻書들이 《切韻》을 잇고 있으나, 《中原音韻》은 《切韻》계통의 韻書를 잇지 않고 있다는 점에도 중점을 두어, 中古音 全濁音이 淸音化되고, 舌上音이 正齒音으로 합해진 것을 字母 계통이 다른 韻書들 즉 《切韻》系 韻書와 《中原音韻》 사이의 변화 과정으로 보고 있는 관점도 다시 생각해 봐야 한다고 본다. 즉 같은 계열의 韻書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音變 상황을 연결시키는 것은 무리일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수도 있다. 다시 말해 전통 韻書들은 엄격한 시의 押韻을 위한 韻書들이어서 口語가 거의 반영되어 있지 않다. 기타 韻書들이 口語를 반영하고 있는 지의 여부는 본 논문에서는 언급하지 않는다.

《中原音韻》은 전통 韻書의 계통을 잇지 않고 순수 口語를 반영하고 있다는 데에 의미가 크다고 볼 수 있다. 게다가 민간 문학의 대표인 北曲을 쓰기 위해, 시 압운보다 훨씬 자연스러운 曲의 압운에 사용하고 있는 韻書라는 점도 잊어서는 안 된다.

王力이 宋代의 聲母를 朱熹의 反切에 근거해서 21개[30]로 再構하고 있는데, 《中原音韻》전에 나온 《學要》에서 36개의 聲母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元代만의 음이 아님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 주는 것이다.

아래에는 羅常培의 《中原音韻》 聲母 再構음을 기준으로 삼아 여러 학자들이 再構한 《中原音韻》 聲母들도 같이 제시하고 비교해 보았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中原音韻》의 聲母 개수는 학자들마다 다르게 再構하고 있다. 羅常培는 20개로 再構하고 있다.

30) 王力; 《漢語語音史》, 北京, 中國社會科學出版社, 1985年, pp.260~262.

표1 羅常培의 《中原音韻》 聲母 再構音表

音 \ 清濁	全清	次清	全濁	全清	全濁	不清不濁
脣音 重脣音	崩(p)	烹(p')				蒙(m)
脣音 輕脣音	風(f)		亡(v)			
舌音(舌頭音)	東(t)	通(t')				膿(n)
牙音	工(k)	空(k')				
齒音 齒頭音	宗(ʦ)	聰(ʦ')		嵩(s)		
齒音 齒上音	鍾(ʧ)	充(ʧ')		雙(ʃ)	戎(ʒ)	
喉音	烘(x)					邕(ø)
半舌音						龍(l)

零聲母를 포함하여 24類로 본 이는 趙蔭棠과 王力[31]인데, 그 내용은 다르다. 즉, 趙陰棠은 羅常培의 (工)、(空)、(烘)母에 /k-/、/k'-/、/x-/와 /ʧ-/、/ʧ'-/、/ɕ-/의 두 계열이 포함되었고, 〔疑〕(/ŋ-/)가 났다 하고, 王氏는 羅氏의 (鐘)、(充)、(雙)、(戎)母에서 /ʧ-/、/ʧ'-/、/ʃ-/、/ʒ-/와 /ʦ-/、/ʦ'-/、/ʂ-/、/ʐ-/의 두 계열이 別立됨을 말했다[32].

董同龢는 /p-/、/p'-/、/m-/、/f-/、/v-/、/t-/、/t'-/、/n-/、/l-/、/ʦ-/、/ʦ'-/、/s-/、/tʃ-/、/tʃ'-/、/ʃ-/、/ʒ-/、/k-/、/k'-/、(/ŋ-/)、/x-/、/o-/ 등으로 推定하였고[33], 王力의 /p-/、/p'-/、/m-/、/f-/、/v-/、/t-/、/t'-/、/n-/、/l-/、/ʦ-/、/ʦ'-/、/s-/、/tʃ-/、/tʃ'-/、/ʃ-/、/ʒ-/、/ʦ-/、/ʦ'-/、/ʂ-/、/ʐ-/、/k-/、/k'-/、/x-/、/ø-/ 와 比較해 보면, /ŋ-/은 /ø-/에 包含시키고, 支思韻의 〈照〉、〈日〉系字를 /tʃ-/、/tʃ'-/、/ʃ'-/、/ʒ-/ 등에서 分離하여, /ʦ-/、/ʦ-/、/ʂ-/、/ʐ-/로 한 것이다.

31) 王力; 《漢語史稿》, 北京, 中華書局, 1980年, pp.109~110.
32) 趙憩之; 《等韻源流》, 臺北, 文史哲出版社, 1985年, pp.120~122.
33) 董同龢; 《漢語音韻學》, 文史哲出版社, 1981年. p.59.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藤堂明保는 /p-/、/p'-/、/f-/、/w-/(/v-/)、/m-/、/t-/、/t'-/、/n-/、/l-/、/k-/、/k'-/、/ŋ-/、/ʦ-/、/ʦ'-/、/s-/、/ʧ-/、/ʧ'-/、/ʃ-/、/ʒ-/、/ʈʂ-/、/ʈʂ'-/、/ʂ-/、/ʐ-/、/ʔ-/、/x-/、/j-/ 이러한 26類였다고 말했다.[34]

陳新雄은 羅氏의 (鐘)、(允)、(雙)、(戎)母를 /ʧ-/、/ʧ'-/、/ʃ-/、/ʒ-/로 보고 (疑)母(/ŋ-/)를 인정했다[35].

본 논문에서 살펴 본《擧要》 36字母의 推定音과 비교를 해 보면, 輕脣音인 〔微〕母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微〉母는 14세기 중국 北方계 韻書인 《中原音韻》에서는 v로 변화되어, 王力에 의하면 17세기 이후에 비로소 半母音 /-w-/를 거쳐 母音인 /-u/로 변한 후 〈喩〉、〈疑〉母에 합류되었다고 하였다.[36] 또한 全濁 聲母에서와 不淸不濁 聲母에서 큰 차이를 나타내고 있는데, 全濁 聲母의 소실은 北方계 韻書들이 갖고 있는 공통적인 특색이다. 全濁 聲母에 관한 논문 중에서 흥미로운 논문 하나를 발견하게 되었다. 그것은 北方話 중의 全濁 聲母가 전부 淸音 聲母로 변하게 된 것이 아니라, 周秦漢 이래로, 적어도 황하 중하류 지역에는 全濁音 聲母가 없는 方言區가 존재하고 있었고, 元代 중기 이후의 北方話는 이 지역의 고대 方言을 계승한 것이지, 全濁音 聲母가 有에서 無로 점차 변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37]. 이 부분은 앞으로 계속 연구되

34) 藤堂明保; 《中國語音韻論》 pp.93~96.
35) 陳新雄; 《中原音韻概要》, 臺北, 學海出版社, 1981. 6. pp.23~25
36) 王力, 《漢語史稿》, 北京, 中華書局, 1980年, p.131
37) 從保留至今的古漢語語音資料來看, 自元代中期始, 漢語南北方音的最大區別是以吳語爲代表的一些南方方言中存在着一個與全淸、次濁、次濁音聲母相對應的全濁音聲母系列, 而以中原地區語言爲代表的北方話中則完全沒有全濁音聲母. 這種現象引起了不少學者的研究興趣. 近些年來有些研究漢語語音史的學者陸續發表了自己的意見, 大家比較一致的看法是 : 唐宋以前在所有漢民族語言中都存在一個全濁音聲母系列, 經過唐宋兩代的逐漸演變, 到元代中期, 北方話中的全濁音聲母便全部演變成了淸音聲母. 筆者對這個 "演變" 說長期持懷疑態度, 最

어야 할 부분이고, 본 논문은 《中原音韻》에 대해 논하고 있는 논문이 아니라서 여기서는 개략적인 소개로 그친다.

全濁 聲母가 완전히 보유된 것을 이유로 南方계 韻書라는 이론[38]이 있기는 하나, 이 이론을 제기한 竺家寧도 작자가 昭武 方言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南方音설을 주장하고 있다. 이 부분은 본 논문에서는 전통 韻書의 영향을 그대로 받고 있다고 보고 있으며, 이 점은 앞으로도 계속 연구되어야 할 과제로 남겨둔다.

《中原音韻》과 《擧要》의 音을 비교한 것을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39]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近幾年經過反復鉤稽，終于獲得了一部分與前面所說的意見出入很大的語言資料，并通過對這些資料的滙總分析，得出的初步結論是：自周秦漢以來，至少在黃河中下游地區，就存在着一個沒有全濁音聲母的大方言區，元代中期以后的北方話是對這一地區古代方音的繼承，而不是全濁音聲母終有到无逐漸被“演變”掉了.

蕭泰芳; 〈古全濁音聲母“演變”說質疑〉, 山西大學學報(哲學社會科學版), 1997. 3.

38) 竺家寧; 《古今韻會擧要的語音系統》, 臺北, 臺灣學生書局, 1986年

39) 羅常培; 〈中原音韻聲類考〉, 中央研究院 歷史語言研究所集刊 第2本 第4分 (1232刊)

《中原音韻》 音價 뒤의 굵은 글씨의 字母는 《擧要》 36字母이다.

표2 《中原音韻》과 《擧要》 聲母對照表

清濁	全清	次清	全濁	全清	全濁	不清不濁
音						
脣音 重脣音	崩(p) 幫	烹(p') 滂	並			蒙(m) 明
脣音 輕脣音	風(f) 非	敷	亡(v) 奉			微
舌音(舌頭音)	東(t) 端	通(t') 透	定			膿(n) 泥
牙音	工(k) 見	空(k') 溪	群			疑
						魚
齒音 齒頭音	宗(ts) 精	聰(ts') 清	從	嵩(s) 心	邪	
齒音 齒上音	鍾(tʃ) 知	充(tʃ') 徹	澄	雙(ʃ) 審	戎(ʒ) 禪	娘
喉音	烘(x) 影	曉	匣			邕(ø) 喩
	幺		合			
半舌音						龍(l) 來
半齒音						日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2. 昭武 方言의 聲母 體系

《擧要》 작자의 출신지인 昭武, 이 지역의 위치에 관해 異說이 많다. 異說이 많은데도 그 昭武 方言과 관련지어 《擧要》의 音을 再構한 논문은 없다. 그래서 본 논문은 昭武 地域音과 《擧要》가 어떤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기로 했다.

그러나 36字母가 어느 한 地域音이 아님을 앞에서도 서술했듯이 36字母와 方言에서 모두 일치하는 경우는 없었다. 昭武 方言에도 없는 濁音 聲母를 보유하는 贛方言에서 보유하고 있음을 살펴 볼 수는 있었으나, 贛方言은 《擧要》의 작자와도 아무런 연계를 찾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단지 濁音 聲母를 보유한다는 이유로 贛方言과 무리하게 연결짓는 것은 타당하다고 보지 않기 때문에 본 논문

은 《擧要》의 濁音 聲母 보유는 전통 韻書의 영향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작자의 출신지와 관련해 北方音과 南方音을 주장하는 설들이 있는 관계로 작자 출신지와 36字母는 비교한다.

福建省은 중국의 東南部에 위치하고 있다. 福建方言은 南平과 長樂의 고립된 두 개 島嶼의 官話(北方話) 方言을 제외하고, 크게 두 개의 구역으로 나눌 수 있다. 客方言區와 閩方言區로 나눌 수 있다. 客方言 중에서 昭武, 將樂등 북쪽에 가까운 7개 지역은 閩方言과 공통점이 비교적 많다.

昭武 方言은 다음의 20개의 聲母를 가지고 있다:

/p-/、/p'-/、/m-/、/f-/、/v-/、/t-/、/t'-/、/n-/、/l-/、/ts-/、/ts'-/、/s-/、/tɕ-/、/tɕ'-/、-/ɕ-/、/k-/、/k'-/、/ŋ-/、/x-/、/ø-/[40]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본 논문에서 위의 20개 聲母를 가지고 도표화 해보면 다음과 같다:

40) 潘茂鼎外; 〈福建漢語方言分區略說〉, 《中國語文》 雙月刊, 1963年 第6期 (總第 126期), p.475.

표3 昭武 方言 聲母表

音 \ 清濁	全清	次清	全濁	全清	全濁	不清不濁
脣音 重脣音	p	p'				m
脣音 輕脣音	f		v			
舌音 (舌頭音)	t	t'				n
牙音	k	k'				ŋ
齒音 齒頭音	ts	ts'		s		
齒音 齒上音	tɕ	tɕ'		ɕ		
喉音	x					ø
半舌音						l

昭武는 비록 南方에 위치하고 있지만, 그 聲母 체계에 있어선 오히려 《中原音韻》의 聲母와 유사한 점이 더 많다.

王力은 昭武는 지금의 甘肅省 張掖市여서, 《學要》를 熊忠이 注를 달고 있는 七音에 따라 어느 字母韻에 속한 지를 연구해 나가면 元代 西北 方言의 槪況을 알 수 있다고 하고 있다[41].

그러나 竺家寧은 王力이 〈中國言語學史〉에서 얘기하고 있는 《學要》 작자의 출신지 昭武가 甘肅省 張掖市이고 이로써 元代 서북 方言을 알 수 있다는 것은 사실에 부합되지 않고, 昭武는 지금의 福建省 昭武縣 부근이라고 하고 있다[42]. 그래서 竺家寧은 《學要》 작자의 출신지와 《中原音韻》(1324)의 聲母에서 이미 완전히 全淸化된 것과 관련해서, 그것보다 단지 27년 이른 《學要》(1297)에 濁音 聲母, 예를 들어, [群]、[定]、[並]、[奉]、[從]、[澄]、[邪]、[禪]、[匣] 母가 보유되어 있다는 이유

41) 如果我們依照他所謂案七音屬某字母韻來進行分類研究, 可以知道元代西北方言的概況(黃公紹與熊忠都是昭武人, 昭武在今甘肅省張掖市).
王力; 〈中國語言學史〉(連載), 《中國語文》 雙月刊, 1963年 第5期(總第 126期), p.414.

42) 竺家寧; 《古今韻會學要的語音系統》, 臺北, 臺灣學生書局, 1986年, pp.5~6.

로 《擧要》가 南方音일 가능성이 짙다고 하고 있다[43].

昭武 方言에 관해서만 다룬 논문은 극히 소수이다[44].

雷伯長은 〈說昭武方言〉에서 昭武는 福建 西北角富屯 계곡의 中上流에 위치한다고 하고 있다. 이 논문에서 《擧要》의 字母와 관련된 부분을 살펴보면, 昭武를 客家 方言으로 삼는 주요 證據는 聲母 중에 脣齒音 /f-/、/v-/이고, 昭武 方言의 /f-/는 送氣 成分이 매우 강한 雙脣 淸塞音 /p'-/에서 왔고, /v-/는 雙脣 濁塞音 /b-/에서 왔다[45]고 하고 있다.

陳章太는 〈昭武方言的入聲〉에서 昭武 方言의 (來)母의 글자는 舒聲調에서는 /l-/로 읽고, 오직 促聲調에서만 /s-/로 읽힌다[46]고 하고 있다.

《韻會》나 《擧要》 작가의 출신지가 물론 둘 다 昭武이기는 하나, 昭武 方言에는 濁音 聲母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竺家寧은 昭武는 지금의 福建省 昭武縣 부근이고, 이것은 《擧要》의 지역 배경과 관계가 있으므로 변별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고, 그 이유를 다음의 두 가지로 보고 있다.

첫째, 《擧要》의 卷首에 盧陵劉辰翁 서문에

> "江閩相絶、望全書如不得見"
>
> (…江과 閩이 서로 단절되어 있어서, 全書를 보려고 해도 볼 수 없는 것과 같다.[47])

---

43) 竺家寧; 《古今韻會擧要的語音系統》, 臺灣學生書局, 1986年, pp.24~25.

44) 雷伯長; 〈說昭武方言〉, 《語文研究》 第2期, 1984.
陳章太; 〈昭武方言的入聲〉, 《中國語文》 第2期, 1983.
熊正輝; 〈光澤、昭武話裏的古入聲字〉, 《中國語文》 總第97期, 1960.

45) /f-/、/v-/가 閩語에 나타나는 유일한 예외는 海南島의 海口, 定安 方言이다. 雷伯長; 〈說昭武方言〉, 《語文研究》 第2期, 1984. p.144.

46) 陳章太; 〈昭武方言的入聲〉, 《中國語文》 第2期, 1983, p.111.

47) 熊忠; 《古今韻會擧要》(《影印 文淵閣四庫全書》經部十), 臺灣, 常務印書館.

여기서 말하는 江은 江西盧陵이고, 劉씨 자신의 본적이며, 閩은 福建昭武를 가리키며, 《學要》 작자의 본적이다.

둘째, 元代 北方에 통행되었던 대표적인 《中原音韻》(1324)은 그 聲母에서 이미 완전히 全淸化되었는데, 그것보다 단지 27년 이른 《學要》(1297)는 濁音 聲母를 완전하게 보유하고 있다. 예를 들어, 〔群〕、〔定〕、〔並〕、〔奉〕、〔從〕、〔澄〕、〔邪〕、〔禪〕、〔匣〕母가 《學要》 중에 보유되어 있다[48].

竺家寧은 이 책에서 몇 가지 이유를 더 들고서 南方音일 가능성이 더 짙다고 하고 있다[49].

또한 竺家寧은 이 책에서 黃公紹의 문학 작품은 모두가 南方의 경치를 노래하고, 北方의 자취가 있는 것은 하나도 없고, 생활 범위 역시 南方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南方音설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姜聿華는 〈黃公紹詞韻與《古今韻會學要》〉에서 山東의 詞 작가인 辛棄疾 詞의 用韻과 비교해 보면, 黃公紹는 비록 福建人이지만, 黃公紹의 詞의 用韻은 北方詞 작가들의 用韻과 기본적으로 일치하고 있고, 詞 작가들이 詞의 격률에 따라 詞를 짓고 작곡할 때는, 결코 각자의 方言에 따라 韻을 넣은 것이 아니라, 통용되는 語音을 채용하여 韻을 넣었을 것인데, 이 韻이 바로 "中原雅音"이다[50]고 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 살펴본 《學要》 36字母와의 異同을 살펴보면, 昭武方言에서도 全濁 聲母에서 큰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 계속해서 주장해 왔던 《學要》 36字母가 전통 韻書의 영향

---

p.359.

48) 竺家寧; 《古今韻會學要的語音系統》, 臺北, 臺灣學生書局, 1986年, pp.5~6.

49) 竺家寧; 《古今韻會學要的語音系統》, 臺北, 臺灣學生書局. pp.24~25.

50) 姜聿華, 〈黃公紹詞韻與《古今韻會學要》〉, 贛南師範學院學報 (哲學社會科學版), 第3期, 1987, p.45.

을 받고 있다는 것에 있어 더욱 확신을 얻게 되었다.

따라서 竺家寧이 주장해 왔던 昭武가 南方에 위치하고, 작자가 昭武人이라 해서 南方音이라 보아 왔던 부분에 있어서도, 수정을 가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Ⅵ. 結論

본 논문에서는 《擧要》가 단순한 韻書의 수준을 벗어나, 다양한 서적들을 참고하여 집대성한 서적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擧要》 36字母는 元代라는 한 시대, 南方이나 北方 어느 한 지역의 語音만을 반영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단일 음계의 韻書가 아니라 종합 음계를 반영한 韻書임을 본 논문에서 밝혀 보았다.

본 논문에서 再構한 《擧要》 36字母의 〔見〕、〔溪〕、〔群〕、〔疑〕、〔魚〕、〔端〕、〔透〕、〔定〕、〔泥〕、〔幇〕、〔滂〕、〔並〕、〔明〕、〔非〕、〔敷〕、〔奉〕、〔微〕〔精〕、〔淸〕、〔從〕、〔心〕、〔邪〕〔知〕、〔徹〕、〔澄〕、〔審〕、〔娘〕、〔禪〕〔影〕、〔曉〕、〔么〕、〔匣〕、〔喩〕、〔合〕、〔來〕、〔日〕母의 音價는 /k-/、/k'-/、/g'-/、/ŋ-/、/ø-/、/t-/、/t'-/、/d-/、/n-/、/p-/、/p'-/、/b'-/、/m-/、/f-/、/f'-/、/v-/、/ɱ-/、/ts-/、/ts'-/、/dz'-/、/s-/、/z-/、/tɕ-/、/tɕ'-/、/dʑ'-/、/ɕ-/、/n-/、/ʑ-/、/ʔ-/、/x-/、/ø-/、/ɣ-/、/ø-/、/ɣi-/、/l-/、/ʐ-/였다. 〔知〕、〔照〕系 合併에 있어서는 《擧要》에서 이 글자들을 次商이라 하여, 〔精〕系 옆에 두고, 次徵라 하여 〔端〕系 옆에 두지 않은 것으로 미루어 보아, 이 시기에는 이미 〈知〉系의 글자는 舌上音이 아니라 正齒音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么〕母는 전통의 36字母에는 없던 것으로, 《擧要》에서 새롭게 증가되었다. 〔么〕母에 배열된 글자는 中古의 〈影〉母에 배열되어 있었다. 《擧要》 시대는 中古音이 近代音으로 넘어가는 과도기라고 할 수 있으니, 이 喉塞音이 소실되는 과정 중에서, 어떤 글자는 여전히 喉塞音을 보유하고 있고, 어떤 글자는 이미 零聲母로 변

하는 이런 상황하에 喉塞音을 보유하고 있었던 〈影〉母가 零聲母의 〔ㄠ〕母로 변하였다.

《學要》 시대에는 적지 않은 〈疑〉母字가 聲母를 소실하였고, 聲母를 소실한 開口字는 〔喩〕母에 들어 가게되었고, 聲母를 잃은 合口字는 독립적으로 하나의 聲母를 이루었는데, 이것이 〔魚〕母이다. 〔魚〕母가 零聲母의 合口字가 되니, 원래 〈喩〉母에 속해 있었던 合口字도 이 새로운 〔魚〕母에 들어가게 되었다. 〈喩〉母에 속했던 合口字는 주로 모두 中古 早期의 〈爲〉母였다. 그래서 魚母의 성립은 零聲母의 合口字를 수용하게 되는 것이다. 〈疑〉母는 周德淸의 《中原音韻》에 이르러서는 聲母는 이미 완전히 소실되었다. 그러나 《學要》의 語音 계통에 일부 보존된 것은 聲母 소실의 과도기 단계였기 때문이다.

〔合〕母는 《學要》에 새로 증가된 또 다른 하나의 聲母이다. 合이라는 글자 그 자체는 전통의 〈匣〉母字였다.

昭武 方言에도 나타나지 않았던 〔群〕、〔定〕、〔並〕、〔奉〕、〔從〕、〔澄〕、〔邪〕、〔禪〕、〔匣〕母 등의 濁音 聲母는, 《學要》가 종합 음계를 반영한 韻書임에 초점을 맞춰 해결하였다. 北方音의 대표적인 韻書인 《中原音韻》 聲母와의 비교를 통해 《學要》 36字母와의 관계도 살펴보았다. 같은 시대의 韻書이기는 하나 《中原音韻》의 20여 개의 聲母는 元代라는 한 시대의 聲母 계통을 반영한 것이어서,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알고 있듯이 《中原音韻》이 元代의 聲母를 나타낸 대표적 韻書라고 보는 것이 훨씬 타당했음을 본문의 연구를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었다. 그러나 宋末 元初의 韻書라고 보고 있는 《學要》에도 실제 語音이 반영되었기 때문에 元代의 실제 語音의 상황을 살피는 데 《學要》를 빼드릴 수는 없는 것이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결국 《擧要》는 전통 韻書의 영향을 받으면서 작자가 책을 쓸 당시의 실제 語音도 반영한 것으로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參考文獻

< 단행본 >

《影印 文淵閣四庫全書》經部十, 臺灣, 常務印書館.

《古今韻會擧要》(影印本), 1975, 亞世亞文化社, 서울.

唐作藩, 1987, 《音韻學教程》, 北京大學出版社, 北京.

董同龢, 1983, 《漢語音韻學》, 文史哲出版社, 臺北.

王力, 1980, 《漢語史稿》, 中華書局, 北京.

王力, 1984, 《中國語言學史》, 中國圖書刊行社, 홍콩.

王力, 1985, 《漢語語音史》, 中國社會科學出版社, 北京.

王力, 1984, 《漢語音韻》, 中華書局, 홍콩.

王力, 1956, 《漢語音韻學》, 中華書局, 北京.

竺家寧, 1986, 《古今韻會擧要的語音系統》, 臺灣學生書局, 臺北.

寧忌浮, 1997, 《古今韻會擧要及相關韻書》, 中華書局, 北京.

鄭再發, 《蒙古字韻跟八思巴有關韻書》, 臺灣文史叢刊, 臺灣.

唐作藩, 1987, 《音韻學教程》, 北京大學出版社, 北京

謝雲飛, 1987, 《中國聲韻學大綱》, 學生書局.

楊耐思, 照那斯圖, 1987, 《蒙古字韻校本》, 民族出版社, 北京.

寧忌浮, 1997, 《古今韻會擧要及相關韻書》, 中華書局, 北京.

鄭再發, 《蒙古字韻跟八思巴有關韻書》, 臺灣文史叢刊, 臺灣.

〈論 文〉

安在哲, 1994, 〈《韻略匯通》의 音價 推定-《韻略易通》과의 비교를 통하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博士學位論文.

王玉枝, 〈《古今韻會擧要》와 《廣韻》의 入聲字 比較研究〉,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權赫埈, 1995, 〈《古今韻會擧要》의 音韻體系研究 -《四聲通解》의《韻會》音을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대학원.

曺喜武, 1998, 〈《古今韻會擧要》研究〉. 전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楊耐思, 1989, 〈《韻會》与《七音》,《蒙古字韻》〉, 語言文學學術論文集.

權赫埈, 1995, 〈《古今韻會擧要》의 音韻體系 研究-《四聲通解》의 韻會音을 중심으로-〉, 博士學位論文, 고려대학교 대학원.

李添富, 〈《古今韻會擧要》聲類考〉, 香港浸會學院中國聲韻學國際學術研討會.

花登正宏, 1986, 〈古今韻會擧要所引說文解字考—특히卷二十五에 대해서—〉, 人文研究 第38卷 第4分冊 中國語·中國文學.

李添富, 〈《古今韻會擧要》同音字志疑〉, 輔仁學誌 第22期.

李添富, 〈《古今韻會擧要》與禮部韻略三十六母通考比較研究〉, 輔仁學誌 第23期.

李添富, 1990, 〈《古今韻會擧要》研究〉, 國立臺灣師範大學中國文學研究所,

寧忌浮, 1990, 〈《中原音韻》與高安方言〉, 陝西師大學報(哲學社會科學版) 第1期.

王碩荃, 1990, 〈韻會音系研究簡論〉, 探索集—河北省哲學社會科學"七五"(后三年)規劃課題成果論文集(第一輯).

王碩荃, 1991, 〈韻會音系基礎初探〉, 漢語言學國際學術研討會.

王碩荃, 1997, 〈《韻會》與七音〉, 河北省社科院語言文學研究所, 河北學刊.

姜聿華, 1987, 〈黃公紹詞韻與《古今韻會擧要》〉, 贛南師範學院學報(哲學社會科學版) 第3期.

應裕康, 〈古今韻會擧要反切之研究〉, 國立政治大學學報 第8期.

竺家寧, 〈宋代語音的類化現象〉, 淡江學報 22期.

竺家寧, 1987, 〈韻會重紐現象研究〉, 漢學研究 第5卷 第2期.

花登正宏, 1986, 〈古今韻會擧要所引說文解字考—특히卷二十五에대해서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 人文研究 第38卷 第4分冊 中國語·中國文學

李新魁, 1984, 〈重紐研究〉, 語言研究 第2期.

胡從曾, 1987, 〈三十六字母與等韻—兼證古聲十九紐〉, 浙江師範大學學報 哲社版(金華).

張卒源, 1994, 〈《古今韻會擧要》之入聲字研究〉, 輔仁大學中國文學研究所.

寧忌浮, 1990, 〈《中原音韻》與高安方言〉,陝西師大學報(哲學社會科學版) 第1期

寧忌浮, 1996, 〈《七音韻》考索〉, 語言研究.

雷伯長, 1984, 〈說昭武方言〉, 《語文研究》 第2期.

陳章太, 1983, 〈昭武方言的入聲〉, 《中國語文》 第2期.

熊正輝, 1960, 〈光澤、昭武話裏的古入聲字〉, 《中國語文》 總第97期.

周祖謨, 民國 65年, 〈宋代汴洛語音考〉, 《詞學集》(下), 知仁出版社, 臺北.

潘茂鼎外, 1963, 〈福建漢語方言分區略說〉, 《中國語文》 第6期.

潘悟云, 1997, 〈喉音考〉, 《民族語文》 第5期.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中文提要

本文認爲《擧要》是一本擺脫了單純的韻書體例，參考了多種典籍而編成的韻書。一般人認爲《擧要》的36字母只是反映了一个時代、一个地方如南方或北方的語音，這種看法是不盡合理的。本文證明了《擧要》不是反映單一音系的韻書而是反映綜合音系的韻書。

前人大多認爲《擧要》的36字母只反映了元朝的實際語音，如果這樣認爲的話，36个字母的數目則嫌太多。本文證明了《擧要》其實是受到了傳統韻書的影響，同時也反映了當時的實際語音。對于<知>、<照>系的合并，《擧要》認爲是次商，故放在<精>系的旁邊，而不認爲是次徵，所以不歸入<端>系。從這一点可知，這个時期，<知>系的字已不是發舌上音，而是發正齒音。

跟同時代的韻書《中原音韻》相比，《中原音韻》反映的是元朝的口語音，而《擧要》反映的音則受到了很多傳統韻書的影響。所以就字母方面比較高下，有点勉强。

本文還將《擧要》跟作者的出生地昭武方言進行了比較。前人多以昭武位于南方，所以作者可能受了昭武方言的影響。跟昭武方言比較的結果，發現昭武方言中并沒有跟《擧要》36个字母相似的情況。因此本文得出了《擧要》并未反映昭武方言的結論。

本文還構擬了《擧要》36字母的音系，指出了跟中古36字母不同的〔幺〕、〔魚〕、〔合〕母和〈知〉、〈照〉系合并的關系。考察《擧要》所反映的實際語音情況，將《中原音韻》、昭武方言跟《擧要》36字母進行了對比、說明。

本文最后指出，《擧要》是本受到傳統韻書的影響而反映綜合音系的韻書，從36字母中分出了〔幺〕、〔魚〕、〔合〕母的做法可知《擧要》也反映了當時實際的語音。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